



성도의 벗 10-11 1985

“예언자의 말씀이 실린 성도의 벗을 읽읍시다”

표지 설명 : 가족, 비엔나 출신 페르디난드 게오르그 발트물러(1793-1865) 그림, 교회 소장.

International Magazine © 1985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교회 잡지인 성도의 벗은 연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스펜서 더블류 킴블,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

에즈라 태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이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고 문 :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랙스 디
피네가,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통 권 : 제239호, 제21권 제7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바-1135

발행일 : 1985년 10월 1일(격월간지)

발행인 : 서 원

편집인 : 김 영 철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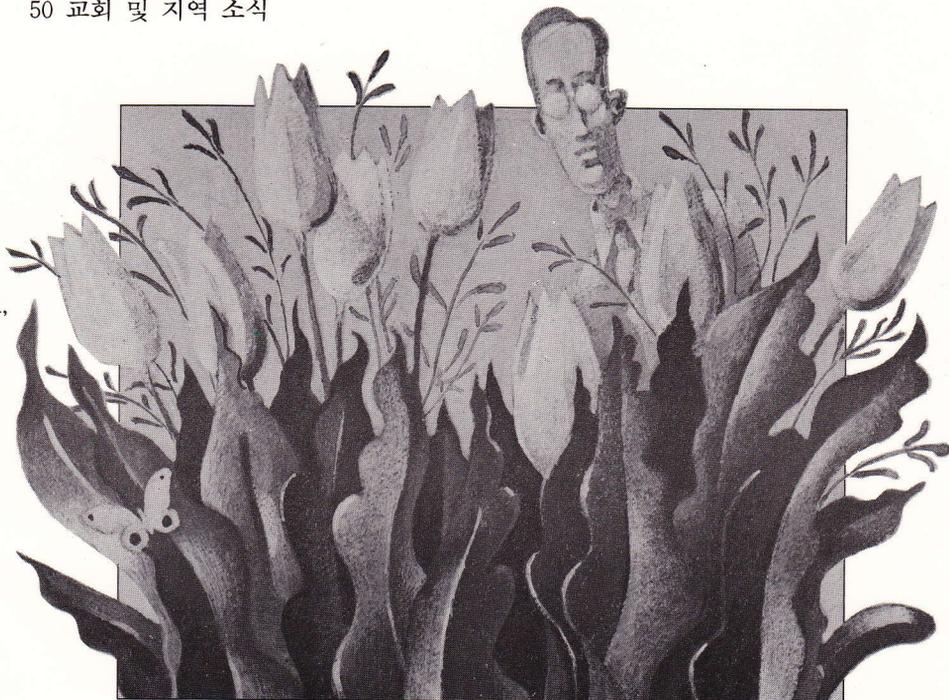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시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620KO PRINTED IN
KOREA 10-11/85

성도의 벗의 1번 정기 구독료는 3,500원
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워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례

- 1 우리 가정의 환경.....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6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다른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돈 엘 쉘
- 11 함께 노력함.....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과의 대화
- 14 시사르 아에도 :
말하지 않는 이야기꾼.....돈 엘 쉘
- 16 부모가 됨 :
모든 것을 진심으로 행함.....패트리시아 티 홀랜드
- 18 자녀가 반항할 때.....가족 지침서
- 21 하와이에서의 어느 날 오후.....크리스 맥케이
- 25 질의 응답
- 28 지금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닐 에이 맥스웰 장로
- 31 돌로 가득찬 주머니.....래리 힐러
- 37 원리.....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 42 심심풀이(노아의 방주)
- 43 승리자.....마가렛 엠 로빈슨
- 46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창세기 24장
- 48 초등학교 생일 축하합니다.....팻트 그래험
- 50 교회 및 지역 소식



우리 가정의 환경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이 복잡한 시대에 태어나서 자라는 자녀의 부모 즉,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일은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낙담스럽기도한, 그러면서도 얼마나 훌륭하고 해볼 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오를 범하며 대부분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모두 가슴아픈 일을 경험하며 대부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자녀가 젖먹이로부터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 보면서 긍지와 기쁨도 느껴 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자신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은 소망을 안고 이 모임에 오신 분도 계시리라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런 분은 이제까지 말씀하신 분들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사하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좌절과 근심이 너무 많고 꿈과 희망이 산산히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 성난 음성이 울린 적이 전혀 없고, 행복하고 평온한 부모님과 충실하고 별로 심각한 문제가 없이 성장하는 자녀가 있는 집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여러분의 집이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자신에게 온 놀라운 축복에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부모로부터 오는 편지와 아들과 딸로부터 오는 편지, 그들에 관한 편지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가정도 많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잘되리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양심적인 남자와 여자, 충실하고 참된 사람, 교회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자녀의 행위로 인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일부 해답은 알고 있으나 필요한 해답을 다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많은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하여 모든 일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몇몇 훌륭한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의 나이 든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방식으로 인생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좀더 어린 아들, 똑똑하고 능력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등학교의 몇몇 어울림이 그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머리가 길어지고,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크게 비탄에 빠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쳤습니다. 그는 울기도 했고 기도도 했고 아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릇된 길을 계속해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늘 음성을 낮추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늘 아들에 대한 사랑을 반복해서 표시했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의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잠자리를 준비하고, 냉장고에 음식을 준비해 두고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환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아픈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마침내 그의 가슴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끔 집으로 자리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한번도 꾸짖지 않고 미소를 보이고, 농담을 하며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끌어 안고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외모가 조금씩 단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이전에 떠난 그 집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선교 사업을 나갔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선교사로서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는 집에 귀환하여 학교에 입학했고, 거기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음성을 타고난 그의 모친과 그는 이중창을 했고, 그 이중창을 듣는 사람들 중 그 가족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그런 아들과 딸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든지 결코 노력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그들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벌을 준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없이 꾸짖는 것으로는 그런 일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인내와 사랑의 표시와 기도와 함께 오는 그 이상하고 훌륭한 권세가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가정의 환경을 쌓을 수 있는 4가지 요소를 제언하고 싶습니다. (1) 봉사의 정신, (2) 성장의 분위기, (3) 사랑의 훈육, (4) 기도의 실천이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게 해주시도록 권고합니다.

봉사의 정신

이기심은 우리 대부분의 생활에서 파괴적이고 갇아먹고 부식시키는 요소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수많은 긴장의 근원이며, 이것은 선의의 뜻을 지닌 부모가 때로는 자녀의 비싸고 불필요한 것에 대한 욕구를 지나치게 들어줌으로써 자녀에게 해로운 이기심을 키워 주게 하고 부모를 곤경으로 몰아 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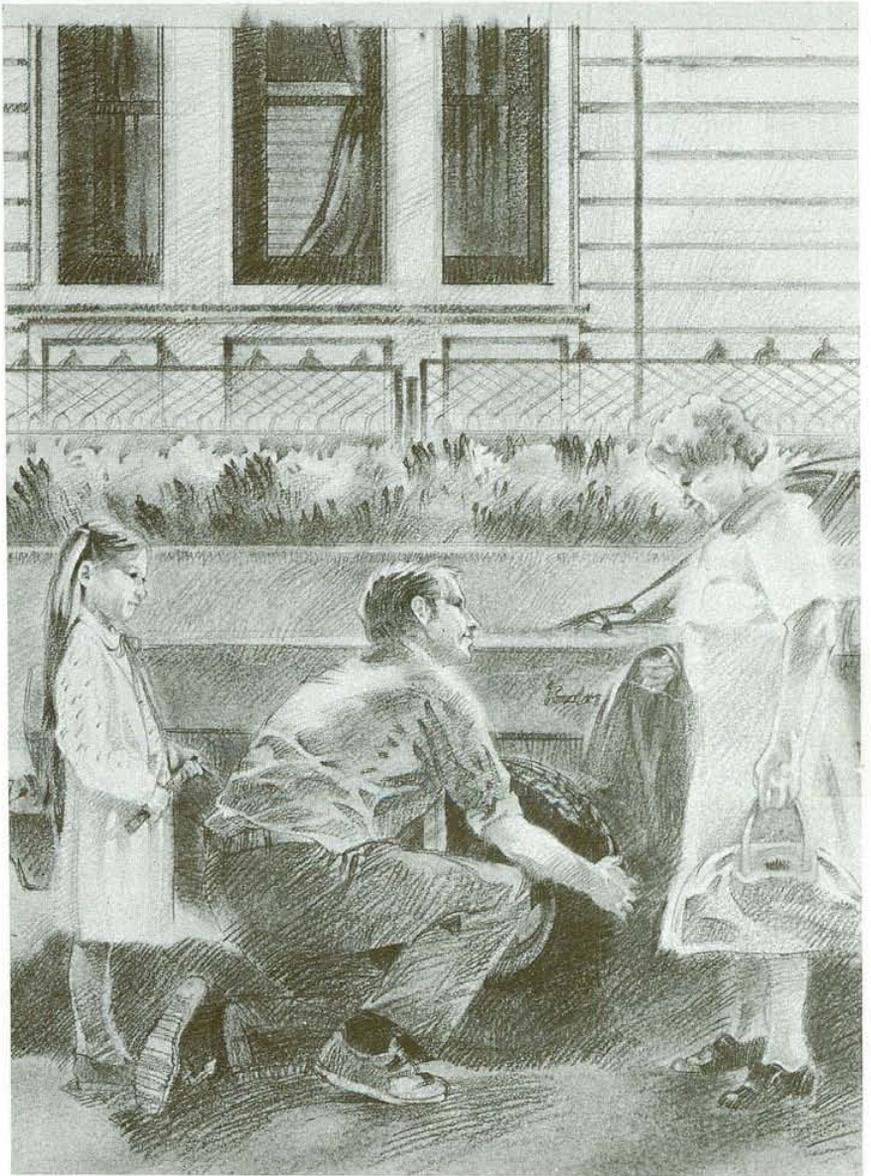
이기심에 대한 해독제는 봉사 즉,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정내의 사람과 가정의 담벼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뻗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이는 자기 생활에서도 그런 경향을 키우기 쉽습니다. 반면에, 자기 부모가 비탄에 빠진 사람에게 손길을 뻗치기 위하여 자신의 편안함을 바치는 것을 보는 어린이는 자신이 성장할 때 그와 같은 모범을 따르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서 활동적이고 이웃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는 어린이는 자라나서도 똑같은 정신으로 행동하게 되기 쉽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비탄에 빠진 사람을 돕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러 가는 것을 보는 어린이는 성장하는 동안 바로 그와 똑같은 모범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비이기적인 정신을 갖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적인 욕망에 탐닉해서는 이렇게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자기 가정에 와서, 또한 가장 가까운 가족의 친분 속에서 주님이 정하신 위대한 원리의 진리를 보게 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막 8 : 35)

성장의 분위기

젊은이의 마음이 뻗어나고 강해지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막 8 : 35)

것을 보는 일이 얼마나 기이할 만큼 재미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텔레비전이 좋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일부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마음을 교화시켜 주거나 강화시켜 주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몇 시간씩 보느라고 엄청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것을 개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는 크고 낡은 집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방 하나를 도서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견고한 탁자 하나, 좋은 등잔 하나, 채광이 잘되는 곳에 놓여진 안락한 의자 서너 개, 또한 벽에 걸린 상자에는 책이 있었었습니다. 굉장히 책이 많았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랜 세월을 두고 모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신 적은 한번도 없었으나 그 책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읍니다.

그 방은 조용했습니다. 그곳은 공부하는 장소로 모두들 알고 있었읍니다.

잡지도 있었는데, 교회 잡지와 두세 가지 좋은 잡지가 있었읍니다. 역사책과 문학 서적, 기술 서적, 사전, 백과 사전 및 세계 지도도 있었읍니다. 물론,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읍니다. 내가 자라는 동안에 라디오가 나왔읍니다. 그러나, 당시의 주변 환경은 학구적인 것이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학자들이었다고 여러분에게 믿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훌륭한 문학, 위대한 사상가들로부터 온 위대한 사상, 깊이 생각하고 아름답게 글을 쓴 사람들의 언어를 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그런 도서관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공간이 부족한 갇힌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잘 계획을 세우면 남는 모퉁이가 있어서 우리 주위의 도움으로부터 숨는 곳이 되는 장소, 앉아서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소박하더라도 책상이나 탁자가 하나 있고 그 위에 교회의 표준 경전, 좋은 책 몇 권, 교회 잡지 및 우리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어린이로 하여금 일찍 책에 접하게 하십시오. 어린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지 않는 어머니는 자녀와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들며, 사실 시간이 많이 듭니다. 자기 수양도 필요합니다. 매일 몇 시간 몇 분까지 정리하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의 마음이 온갖 인물들과 표현과 사상을 알게 되는 것을 지켜 보는 일은 절대로 따분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훌륭한 독서가 즐겨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시간을 들이는 다른 많은 활동보다 장기적인 영향에서 볼 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 대륙(북미대륙)의 어린이들은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평균 약 8천 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커다란 부분이 가치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를 창조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 위대한 사상, 영원한 진리 및 영속적으로 강화시켜 주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들을 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성 88:118) 제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부모에게 가정에서 학문의 분위기와 그로 인한 성장의 분위기를 열심을 다하여 창조하시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훈육

오늘날 세상에서 발견되는 지극히 선한 일과 흉악한 악은 모두 다 어제의 어린이 양육에 따르는 쓴 열매이거나 단 열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수년 후의 세상도 이와 같이 우리가 새 세대를 훈련시키는 대로 될 것입니다. 만일, 미래에 관하여 염려하신다면 오늘 올바른 자녀 교육을 기해야 하겠습니까. 크게 볼 때,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의 특징을 이루는 잔혹성은 수년 전에 자녀를 잔혹하게 다룬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소년 소녀 시절에 우리가 속했던 와드에서 즐겁게 지냈읍니다. 그 와드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살았으며, 나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별로 이사를 다니지 않았읍니다. 나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사람은 예외였읍니다. 고백해야 하겠는데, 나는 그 사람을 지독하게 미워했읍니다. 그 이후로 나는 그런 감정에 대하여 회개하고 있지만 과거를 돌이켜 보면 내 감정이 얼마나 강렬했던가 하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들은 우리 친구였지만, 나는 그 사람을 나의 원수로 생각했읍니다. 왜 이렇게 지독한 악감정을 가졌을까요? 그의

부모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를 창조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
위대한 사상,
영원한 진리 및
영속적으로 강화시켜 주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들을
접하게 해주십시오.



성미가 너무 사나와서 조금만 신경을 건드려도 성미가 폭발하여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때렸는데, 나는 그 모습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자라난 가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어떤 조용한 마술로 자녀가 때로는 틀림없이 육체적인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도 그런 체형을 가하지 않고 자녀를 훈육시킬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그 이웃 사람의 성미의 결실이 그의 피로운 생활에서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하며 이

교회 회원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고, 구세주와 그의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자녀를 학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멧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마 18:6)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대한 사랑과 두려움 가운데서 키우십시오. 결코 감정의 열기 속에서

그들을 교정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우 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41년, 207페이지)

가혹하게 훈육하고 잔인하게 훈육하면 궁극적으로 교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배타심만 남게 됩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고치지 못합니다. 도리어, 자기 패배만 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에서 통치하는 영을 정하시는 가운데 이런 위대한 계시의 말씀으로 가정에서 다스리는 영도 밝혀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는(오직 그때만) 즉시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후에는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저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저로 네 성실함이 죽음의 사슬보다 더 강한 줄 알게 하라.”(교성 121:41, 43-44)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셨습니다. “또 아버지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작은 문제들은 반드시 생기게 마련인데 그럴 때 자신을 억제하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 15:1)

온 세상을 다 보아도 사랑의 훈육 같은 훈육은 없습니다. 그 안에 온갖 마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도의 실천

아직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도 사랑하는 어머니나 친절한 아버지가 침대 곁에서 몇 마디 기도의 말을 도와 주는 동안 기도의 영을 느낄 수 있는 어린이는 꿈절이나 축복받은 어린이입니다.

침대 청소년을 포함하여 자기 가정에서 아침 저녁 가족 기도를 실시하는 가정에 있는 소년 소녀는 정말로 행운아입니다.

온 가족이 무릎꿇고 주님에게 그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자녀에게 감사의 영을 키워 줄 수 있는 방법을 나는 모릅니다. 그런 겸손한 표현은 자녀의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귀한 은사의 근원이라는 인식을 키워 주는 데 있어서 놀라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용서할 권리를 지니신 분에게 겸손하게 용서를 빌고, 약한 것을 극복하고 살 힘을 간구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올바른 일을 행하려는 소망을 키워 주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병 들고 슬픔에 잠긴 사람,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 외롭고 두려워하는 사람, 속박되어 있고 쓰라린 비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릅니다. 진실한 태도와 감정을 갖고 그런 기도를 할 때, 궁핍한 사람에게 손길을 뻗치려는 소망이 더 커지게 됩니다.

가족 기도를 할 때 감독, 스테이크 부장, 교회 대관장을 기억하면 그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더 커질 것입니다. 자녀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과 의로운 소망에 관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기도드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말씀드릴 때, 자녀가 비탄에 빠지거나 극한 상황에 처할 때에 자신의 아버지이자 친구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자연스러운 성품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족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기도를 실천하여 자녀가 아직 어릴 때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합시다. 그것은 영원히 그들의 생활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이 교회의 부모 가운데 누구도 이것을 등한시할 여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같은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의 분위기를 창조하려고 노력하실 때, 제가 제안하고 싶은 4가지 요소는 바로 이것입니다.……(1) 손길을 뻗치는 사랑의 영, (2) 성장을 촉진하는 분위기, (3) 하나님 길은 사랑의 훈육, (4) 신성한 기도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녀 앞에서 정직과 고귀한 인품의 감동적인 모범이 되시는 이 교회의 수많은 훌륭한 부모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신앙과 충실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빛과 진리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하려는 큰 소망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노력에 월계관을 씌워 주고, 언젠가는 여러분 모두가 고대의 요한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요삼 1:4)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요소가 그 중심이 된다.

1. 서로서로 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정신.
2. 가족원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
3. 가족 훈육에 있어서 인도의 원리로서 사랑을 방편으로 사용하겠다는 부모의 결정.
4. 가족이 단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와 실수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는 가족 기도를 매일 실천하는 것.

토론시 유의 사항

1. 위에서 말한 4가지 지침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한다.
2. 이 기사에는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 토론이 더 잘 될까? 결심과 헌신에 관련하여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이 가장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다른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돈 엘 쉘



델린 옥스와 존 디슨가 1952년에 결혼 할 때
브리감 영 대학교 학생이었다.

1984년 4월 이전에 미합중국 대법원에 공석이 있었다면 유타주 대법원의 델린 해리스 옥스 판사가 그 자리를 채울 후보자가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그 자리에 그를 앉힐 것을 고려했던 것이다. 그래서 와싱턴 포스트지의 대법원 기사가 옥스 장로가 교회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새로 부름받은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전화로 진지하게 이 조치가 델린 옥스가 더 이상 미국에서 가장 높은 법원에서 직책을 맡을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다.

옥스 장로는 참을성있게 그렇다고 설명했는데, 그것은 정말 그런 의미였다. 그러나 법원의 직책도 종신 부름이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봉사 방법이 아닌가?

옥스 장로는 정말 그렇다고 확언하지만 그것이 지금 그가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보다 더 우선하지는 않는다고 다짐한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의 부름의 영향과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언한다. “나는 이 부름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 부름 때문에 회열을 느끼고 있으며, 기쁘게 봉사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름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즉시 전화를 해서 그들의 사랑을 표현했다. 총관리 역원 몇 사람이 전화해서 그가 정원회로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 전화하는 사람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든 그의 어머니의 가장 친한 노인 친구이든 똑같이 상냥한 태도로 응답했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판단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1971년부터 1980년까지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비서로 일했던 제닛 콜더는 “그분은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상냥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상냥하기도 하지만 또 솔직하다.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너무나 열성적이다. 언젠가, 그가 한 무리의 방문자 단체를 영접하고 있었던 것을 제닛 콜더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때, 잠깐 틈이 났을 때, 대화가 다른 여러 종류의 교육 경험으로 흘러갔다. 누군가의 말에 응답하여 그 대학 총장은 적극적인 정신적 태도를 개발하는 훈련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방문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갑소사, 그런 말씀 마십시오. 만일, 좀더 적극적인 정신적 태도를 갖고 계셨다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콜더 자매는 계속해서 “그는 매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옥스 장로는 자주 자신의 좌우명인 “먼저 일하고 나중에 논다.”는 말을 한다. 그의 가족은, 사실상 그것은 “먼저 일하고 절대로 안 논다.”는 말이라고 농담한다.

그는 “나는 어떤 것도 재미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하는 일에 재미를 느낄 따름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1981년에 어떤 인터뷰 기자에게 “시간은 성취의 자원이며 나의 목표는 그중 어느 순간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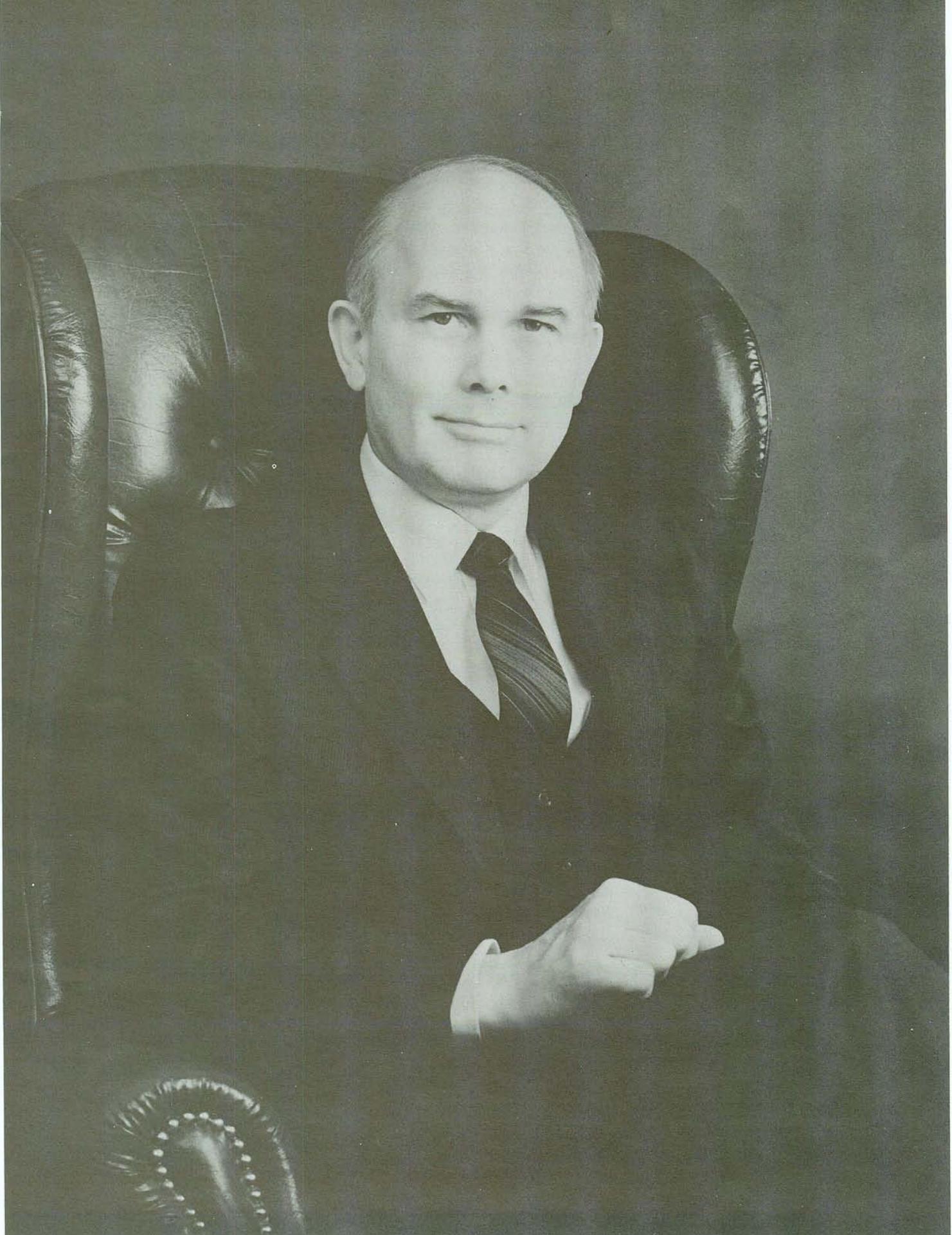
옥스 장로는 1932년 8월 12일 유타주 프로보에서 태어나 근로자로서 자랐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삼사 년밖에 안되었을 때 홀몸이 된 어머니를 돕기 위하여 돈버는 일을 시작했다. 로이드 옥스 박사는 결핵으로 사망하여 젊은 미망인인 스틸라와 세 자녀의 길을 떠났다. 제일 나이 많았던 델린은 당시 만 8세였고, 메릴은 지금 안과 의사로서 유타주 프로보에 있고, 에블린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에이치 로스 해몬드의 부인이 되어 있다.

옥스 장로는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나는 비범한 어머니를 축복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틀림없이 말일에 살았던 많은 숭고한 어머니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대한 신앙”의 여인이요 “매우 훌륭한 부모”이며, 천성적으로 훌륭한 실행력을 갖춘 여성으로 칭송한다. 가족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그 말에 동의할 것이다. 스틸라 옥스는 죽기 전인 1980년에 프로보에서 교회 봉사와 사회 봉사에 있어서 모두 선을 위한 힘으로 알려져 있었다.

옥스 장로는 이렇게 설명한다.

“어머니는 나에게 굉장한 책임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는 “만 11세



혹은 12세 때” 처음으로 봉급받고 일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계속해서 직장을 가졌다.

그의 첫 직장은 라디오 수리상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그는 바닥에서 주은 라디오 진공관을 테스트하여 어느 것이 좋은지 알아내는 것을 배워야 했다. 그리하여 라디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그 타고난 열성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만 16세가 되기 전에 1급 라디오 전화 면허를 따서 상업 라디오 방송국 중계기를 작동하고, 라디오에서 직장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방송국 경영자들은 아나운서로도 일할 수 있는 기사 즉 “1인 2역”의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한다. 그는 “그렇지만 내 음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회상하며 웃는다. 그러나 멀지 않아 그런 변화가 저절로 와서 그는 아나운서로서 정규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부인이 처음으로 그를 만난 것은 그가 대학 1학년 학생으로서 고등학교 농구 시합을 중계 방송하고 있을 때였다. 어떤 사람이 준 덕슨을 시합에서 처음으로 그에게 소개했을 때, 그녀는 아직 근처의 스페니쉬 포크라는 마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1952년 6월 24일에 결혼했는데, 당시 둘 다 브리감 영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당시는 한국 동란이 극렬했을 때였으며, 그는 유타주 국가 수비대에 있었고, 자기 부대가 언제든지 출동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부대들이 출동하는 동안에도 그의 부대는 한번도 출동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전쟁 때문에 선교사로 부름받은 젊은이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멀린은 그들 가운데 끼이지 못했다. 그의 와드의 배정 인원은 다 채워져 있었다.

그의 부인은 “그가 항상 그런 기회를 누리기를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시카고에서 스테이크 선교부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하게 했습니다.”라고 말한다.

부인은 일찍부터 그의 일하는 능력을 인식했다. 그는 브리감 영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계속해서 일주일에 30시간을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했다. 그곳에서의 시간이 끝날 무렵 그는 또 두번째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가구 운반 회사의 사무소 책임자 자리였다.

그는 회계학에서 학사 자격을 받은 다음 시카고 대학 법률 학교로 갔다. (이때 옥스 가족에는 두 딸 샤론과 첼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돈을 벌었으며, 공부에 전념했다. 그는 우등생으로 졸업했으며, 마지막 해에는 그 학교의 유명한 법률 평가를 편집했다.

준 옥스 자매는 “남편이 법률 학교에 다닐 때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나가 있곤 했으며” 일요일은 예외였다고 말한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을 회상한다. “법률 학교에는 나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그 누구도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아.”

“그때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라고 자매가 회상한다. 그렇지만 이 자매는 행복하지 않지 때문에 남편을 비참하게 만드는 다른 많은 학생들의 부인과 같은 실수는 가까스로 피했다. 자매는 자신에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취미를 개발할 필요성을 받아들였다.

멀린 옥스는 근면성과 학구성으로 인하여 졸업 후 미합중국 대법원의 일위렌 대법원장의 법률 서기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 서기 수련 기간이 끝난 일년 후, 그는 변호사 개업을 위하여 시카고로 돌아갔다.

그들의 아들 로이드는 멀린이 법률 학교에서 마지막 해를 보내는 동안에 태어났다. 또 다른 아들 멀린과 끝에서 둘째 딸인 트루앤도 이 가족이 시카고에 있는 동안에 태어났다.

그 기간에 멀린은 교회 봉사를 하며 크게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는 1961년에 시카고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았다. 옥스 자매는 그가 법률 업무 때문에 밤에도 일해야 했으며, 자신의 새 부름의 책임을 어떻게 같이 성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그는 신앙으로 그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가 이 부름에 헌신하는 동안 법률 업무를 일찍 끝내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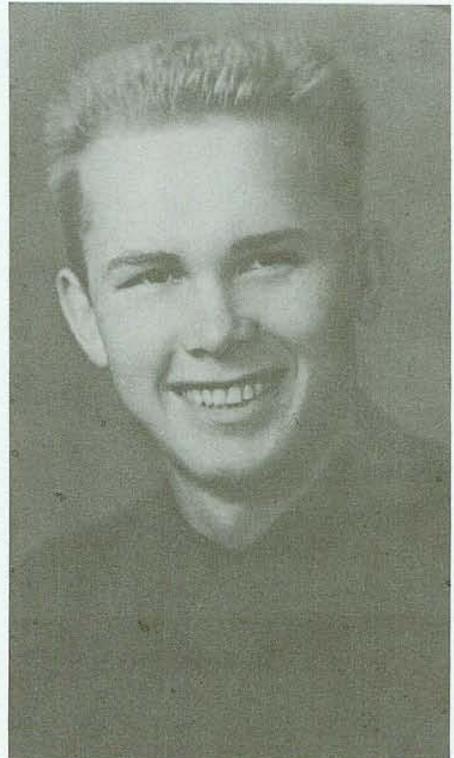
할당된 시간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취를 쌓을 길이 열린 적이 많이 있었다.

1961년에는 시카고 대학 법률 학교 교직원이 될 기회가 왔다. 그는 그 직책이 제시하는 보상과 목표를 위하여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1963년에 시카고 사우스 스테이크 부장단의 제2보좌로 부름받았다. 그는 라이슬 알 카혼 스테이크 부장과 존 소넨버그 제1보좌와 함께 봉사했다. 세 사람 모두 계속해서 십이사도 지역 대표로 봉사했다. (소넨버그 장로는 1984년 10월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받았다.)

멀린 옥스는 교회 부름에도 그 특유의 열성을 갖고 임했다. 소넨버그 장로는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그 동료가 일요일을 “학술적인 먼”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 둔 것을 회상하고 있다. 그의 봉사와 경건 연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려는 진정한 노력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했다.

그 시기는 옥스 총장이 동시에 많은 책임을 맡아야 했던 시기였다.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 훈육 위원회



젊은 멀린은 고등학교 시절에 유타주 프로보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했다.

위원장이었다. 그 위원회는 1969년 2월에 학교 행정부 건물에서 17일 동안의 연좌 데모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기소를 해결했다. 그는 혼육 조처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공정함과 외교 수완으로 인하여 학생, 임직원 및 지역 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1970년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직업에서 이미 명성을 얻고 있었다. 1964년 여름에는 일리노이주 쿡 군의 주 검사보로 봉사했다. 법률 학교 부학장 및 학장 서리, 1968년 여름에는 미시간 대학 법률 학교 방문 교수로 일했다. 그는 1970년에 일리노이 헌법 대회를 위하여 권리 장전 위원회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봉사함으로써 칭송을 얻었다. 1970년과 71년에는 미국 법률 기금의 집행 책임자로 일했다.

소넨버그 형제는 1970년 시카고 사우스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델린 옥스를 제1보좌로 택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오랫동안 같이 친분을 맺게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스테이크 부장이 흔히 갖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었으며, 지금 이렇게 회상한다. “어니스트 윌킨슨이 브리감 영 대학 총장직에서 사임했을 때, 나는 즉시 델린 옥스가 부름받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옥스 총장은 브리감 영 대학에서 일하는 동안 많은 것에 대하여 인정을 받았으나, 그는 학문적 우수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는 사립 학교 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 개입에 반대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사립 대학 대변인처럼 부각되었다. 그는 3년 동안 미국 사립 대학 총학장 협회 회장으로 일했다.

현재 브리감 영 대학 총장인 제퍼리 알 홀랜드는 자기 전임자의 특성을 “훌륭한 자질과 힘이 혼합된 훌륭한” 사람, 또 “법률적인 훈련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실수하지 않는 본능에 의하여 뛰어난 분석 판단력이 더욱 보장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델린 옥스는 브리감 영 대학 총장 직분을 그만 둔 후, 심지어는 1981년 1월 1일에 유타주 대법원에 선서하고 들어선 이후로도 높은 직위에 출마할 기회도 많았고 중요한 연방 직책을 맡으라는 권유도 있었다. 그는 “공직 생활에서 판사가 되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나쳐 버리기로 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종류의 봉사는 우선 순위가 더 높다. 1971년에는 당시 대관장단 제1보좌였던 해롤드 비리 부대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브리감 영 대학으로 가서 인생의 진로가 바뀌었다. 1984년 4월 6일에는 대관장단 제2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다. 델린 옥스는 그의 생애에서 또 다른 새 진로를 기쁘게 취했다. 그는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일부러 찾지 않는 것과 똑같이 그것을 거절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브리감 영 대학 총장으로 있는 동안 큰 대학의 행정 수반이라는 역할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는 이 사람의 영적인 본질이 그늘에 가리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었다. 미합중국 검찰 총장 보좌이며 브리감 영 대학의 제이 르우벤 클라크 법률 학교 학장이었던 렉스 리는 “델린은 계속해서 주님의 영에 의지하며 걷는 사람일 따름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옥스 총장이 “지위의 장식”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는 적이 절대로 없었고,



왼쪽의 딸 제리와 장녀인 샤론은 아버지가 브리감 영 대학교를 졸업하고 법률 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이미 옥스 가족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엄청난 능력을 뽐내는 사람도 아니라고 한다. “그는 전형적인 겸손의 모범입니다. 그는 자만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델린 옥스가 브리감 영 대학에서 말씀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개인적으로 복음 원리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옥스 장모가 브리감 영 대학 총장이 된 직후에 가족이 이 사진을 찍기 위하여 포즈를 취했다. 좌로부터 서 있는 사람: 옥스 자매, 제리, 샤론, 로이드; 앞줄: 델린 옥스 총장, 트루엔.

그는 영성과 학문의 밀접한 관련(반드시 영성이 앞서야 함)을 강조했다.

그의 딸 샤몬은(현재는 재워드 부인) “우리 아버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한 단어를 생각한다면 인격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언제나 그분이 비난받을 만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분이라는 것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우편으로 온 봉투로부터 소인이 찍히지 않은 우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메려오 한 것에 대하여 아버지가 꾸짖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

샤몬은 아버지가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이 된 해에 1학년으로 입학했다. 선생님들이 출석부에서 자기 이름을 보고는 “혹시 ……관련이……?”라고 말할 때가 흔히 있었다. 아무도 그 질문을 똑바로 끝낸 사람이 없었다고 회상하면서 웃는다.

로이드는 브리감 영 대학 시절이 시카고 시절보다는 덜 바빴다고 회상한다. 아버지는 훨씬 더 많이 집에 머물 수 있었다.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는 지령이를 구해서 스페니쉬 포크 강으로 낚시하러 가곤 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로이드(나중에 지질학 학위를 받고 브리감 영 대학교를 졸업했음)는 낚시에 싫증이 나서 돌을 모으거나 던지곤 했으나 아버지는 계속했다. 쥘 옥스는 그것이 그의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이는 낚시를 하면 자신의 판계집을 연구할 때와 똑같은 열성을 갖고 합니다.”

현재 테 칼브에 있는 노던 일리노이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 로이드는 자기 아버지가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은 것에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아버지는 평생 동안 성령과 매우 가까이 지내 오셨습니다.” 어느 날 밤, 로이드는 파티에 가기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하겠다고 부탁드렸다. 그가 차도로 차를 몰고 나올 준비를 갖추었을 때, 아버지가 나오셔서 가지 말라고 부탁하셨다. 거기에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나중에 로이드가 가려고 했던 그 길에서 다른 차가 굴러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 느낌은 경고임에 틀림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샤몬도 자기 아버지가 성령과 가까운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고등학교 시절에 집에 늦게 와서 저녁 문안 인사를 하러 부모의 침실에 가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곤 했던 것을 기억한다.

샤몬은 두 분 부모님이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적이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감사한 한 가지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었다.”

자녀와 친구들은 쥘 옥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는 맬린 옥스의 인생에서의 성공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남편도 그 말에 동의한다. “아내는 나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끌어냈습니다. 그녀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내가 교만해지고 자만하지 않도록 지켜 주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또, 아내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했고, 아내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가 브리감 영 대학 총장으로 있는 동안 부인은 미합중국 대법원장, 소련 최고 재판소장 및 다른 관리들, 제랄드 알포드 전 미국 대통령, 교회의 세 분의 대관장 및 많은 총관리 역원을 접대했다. 부인은 “그 모든 사람을 매우 편안하게 대하였으며, 집에 일하러 온 노무자들에게도 그분들을 대할 때와 똑같이 편안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만 8세된 딸 제니가 바이얼린을 켤 때 기타를 들고 반주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라고 감탄하는 이야기를 한다. 제니는 클래식 음악 레슨을 받게 되어 있으나 때로는 재미로 진류리 음악을 연주한다.

옥스 장로는 자기 부인에 대하여 “딸들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냥 어머니일 뿐 아니라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라고 말한다.

쥘은 남편이 자신의 활동—학교 생활로부터 교회 부름까지—에 있어서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해 주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아내가 여러 여름 동안 남편을 시카고에 두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프로보로 가서 학교에 다녀야 하는데도 부인이 사회학에서 학사 학위를 마치도록 권고했다.

쥘은 “그이는 교육자이자 선생님이기도 하답니다.”라고 말하며, 그가 부인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좋아하리라고 생각하는 기사를 부인에게 자주 전해 준다고 설명한다.

그는 언제나 독서하고 있다. “그이는 매일 신문을 3-4가지 읽습니다.” 와싱턴, 솔트레이크시티, 프로보에서 오는 것을 정구적으로 읽으며, 교회 잡지, 법률 기록 및 광범위한 다른 서적이나 정기 간행물도 함께 읽는다. 상패한 아침에는 기술적인 내용의 기사를 읽고, 좀더 가벼운 내용은 나중에 읽도록 남겨 둔다. 그러나 독서물은 언제나 손 가까이 있다. 부인은 “만일 신호등에서 잠깐 기다리게 될 것으로 생각하면 읽을 것을 집어드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아마도 그가 새 부름을 받았으므로 독서문의 성격이 조금 변할 것이다. 그의 목표가 바뀐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수년 동안 행정적인 경험을 하고 공직에 몸담았으면서도 그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의 장점보다 나의 약점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6년 동안 지역 대표로 일하고 9년 동안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일했으나 다른 총관리 역원들처럼 감독, 선교부장, 신전장으로 일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 그는 교회 교육 기구에서 경전으로부터 가르친 경험도 없었다. “나는 왕국의 세상적 및 영적인 면에 있어서 안해 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매우 부적합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의 새 부름은 어떤 부분에서 그 일이 시작될까?

그는 “다른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름으로써, 그들이 이때까지 해온 일을 함으로써 시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의 친구인 소벤버그 장로는 그가 언제나 “주님과 그의 가족을 먼저, 또 가장 사랑하고 섬겨”왔기 때문에 그 부름에 적합할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옛날부터 그가 왕국에서 큰 책임을 위하여 선택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함께 노력함 :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과의 대화



바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앉아 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조이 에프 이반스(뒤의 왼쪽에 있다), 제1보좌: 조앤 비 독시, 제2보좌: 조운 스펜서, 재정 서기.

질문: 윈더 자매님, 자매님이 1984년 4월에 부름받으신 이후로 상호부조회 건물은 세 보조 조직 즉, 상호부조회 청녀 및 초등협회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 회장: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목적의 단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위대한 대업에 있어서 참으로 함께 하는 동료들입니다.

물론,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단합시켜 주었습니다.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은 매주 한번씩 함께 모이며 모든 어린이, 청녀, 자매, 가족을 강화시키는 공동 소망을 갖고 모입니다.

질문: 와드와 스테이크 수준에서도 이렇게 더욱 단합이 이루어질 것이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윈더 자매: 단합과 협조의 영이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보조 조직이 각 조직의 독특한 책임과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가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협조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조앤 비 독시 자매, 제2보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부름을 받기 전에 오랫동안 초등협회에서 일했으므로 비활동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초등협회 교사를 방문 교사로 지명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매가 매월 그 가정을 방문하는 동안에 어머니 뿐 아니라 자녀까지 온 가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청녀회와 상호부조회 지도자 사이의 협조가 어떻게 상호부조회

연령에 도달한 소녀가 진급해서 받을 옮기는 것을 쉽게 해줄 수 있습니까?

조이 에프 이반스 자매, 제1보좌: 와드와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소녀들이 아무렇게나 자기 어머니 조직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진급이 뜻깊은 것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녀가 만 16세나 17세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소녀들의 인생 초기에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동안 상호부조회에 관하여서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윈더 자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젊은 아들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준비시키는 방식과 똑같아야 합니다. 때때로 월계반 반원들도 가사 모임에 어머니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초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훌륭한 젊은 기혼 자매가 청년반에 와서 상호부조회에 관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독시 자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상호부조회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들에게 제공할 훌륭하고 꼭 필요한 것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부조회 지도자는 이런 청녀 자매를 방문 교사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방문 교육에 관하여 교회 자매들에게 어떤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윈더 자매: 모든 자매에게 자신은 필요한 존재이며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고 생각해 준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방문 교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문 교사 스스로가 사랑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매들에게 방문 교육을 하도록 지명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발전시킬 기회를 주는데, 그것이 그들의 생활에서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반스 자매 : 아일랜드에서 만난 어느 와드 상호부조회 자매가 생각나는군요. 그 자매는 자동차도 전화도 없었으므로 충실하게 자전거를 타고 방문 교육을 다닙니다. 또한, 그 자매는 자신이 하는 일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질문 : 우리 회원들을 보면 광범위하게 온갖 종류의 상황에 있는 자매들이 다 포함된 것이 분명합니다. 자매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이 우리를 모두 단합시켜 줍니까?

이반스 자매 : 복음에 대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나는 여행하는 곳마다 훌륭하고 헌신적인 자매님들, 복음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하며 자신이 부름받은 곳에서 기쁘게 봉사하는 자매님들을 보았습니다.

윈더 자매 : 북부 메인주에 있는 내가 방문한 작은 몇몇 지역 사회에서는 그 독특한 기후 속에서 마치 살아 남기 위한 것처럼 함께 일하는 자매님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좀더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다른 문제...“바쁜 것”과 도시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요구를 다루고 있는 자매들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물리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헌신의 끈이 있었습니다.

질문 : 상호부조회 초창기에 자매들이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생명을 구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유복하게 사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윈더 자매 : 오늘날이 굉장히 안락한 시대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커지는 경제적인 압박 뿐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오늘날도 생명을 구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독시 자매 : 최근에 미시시피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자매들이 함께 하기 위하여 주 전체를 여행하고, 하루 종일에 걸쳐 방문 교육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방식으로 그런 자매애가 필요합니다.

윈더 자매 :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친구 한 사람이 탈진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자매는 휠체어를 타며 방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장비를 갖춘 차를 운전합니다. 그 자매는 동반자를 자기 차에 태우고 방문할 자매의 가정까지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방문을 받는 자매는 자기 집에서 나와서 내 친구가 방문 교육을 하는 동안 그 차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매는 너무나 밝고 사랑에 찬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도 자주 와서 그 주위에 몰려듭니다.

이반스 자매 : 이런 희생에는 성령이 매우 충만하게 부여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을 가져다 주는 희생을 하기 위하여 소외되거나 박탈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우 안락한 상황에서 진실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자매들을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조운 스펜서 자매,

서기 : 아리조나에 있는 유복한 어떤 자매님이 생각납니다. 그 자매님이 알고 있는 어떤 독신 자매는 심한 병에 걸린 어머니를 돕기 위하여 선교 사업 기금으로 모은 돈을 다 써야 했습니다. 그녀의 선교 사업 기금은 병원비를 지불하는 데 다 써 버렸습니다. 이 훌륭한 자매가 그 독신 자매의 선교사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그 자매와 남편은 모두 자신들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 의무와 훌륭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질문 :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기혼자와 미혼자, 가정 밖의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등 일부 자매들—사이에 좀 방어적인 태도가 있는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교회 자매들은 어떤 공통적인 기반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윈더 자매 : 교회 초기의 자매들의 태도에 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갖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별로 없이 서로 돕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문제에 맞섰습니다. 복음 원리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단합시켜 줍니다.



바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조이 에프 이반스 자매, 제1부과

그리고 우리가 단합한다면 굳건히 설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독시 자매 : 모든 여성이 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한 여성의 지위나 환경은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 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조운 비 독시 자매, 제2보좌



조운 스펜서 자매, 재정 서기

물론, 우리는 여러 문화권에서 공과가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반스 자매 : 와드에는 어떤 비극이라든지 또는 처음으로 신전에 가는 사람 등 특별한 필요 사항이 있어서 보충 자료가 있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회 말씀이나 성도의 벗의 기사가 이런 시기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과에서는 이런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 상호부조회 학습 과정에 있는 공과가 교회 전체를 통털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이반스 자매 : 우리는 자매들의 반응이 얼마나 한결같이 긍정적인가 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과를 대단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교사의 능력이 가장 큰 차이를 가져 오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임 역원 프로그램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의 공과 교육 능력을 완전하게 만들 필요성을 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시 자매 : 우리의 교과 과정은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깊은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고안되었습니다. 모든 공과는 우리가 이런 신앙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 길잡이인 복음 원리를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자선 봉사, 사회 관제, 문화의 징수, 어머니 교육 및 가사, 영적인 생활 등 어떤 공과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더 자매 : 우리는 모든 자매가 자유 의지에 따르는 권리와 특권을 그 책임과 함께 이해하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지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에 일치하는 것을 배우는 동안 훌륭한 인격을 얻게 되며,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비탄의 많은 부분을 예방해 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목적을 찾게 되며, 헌신할 때 가장 행복하게 됩니다.

질문 : 지금 우리 자매들 사이에는 예외보다는 규칙이 크게 필요한 국가의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안고

있습니까?

원더 자매 : 우리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좀 결여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로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일조와 헌물이 궁핍한 사람들의 생활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며, 이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독시 자매 : 파테말라의 산악 시대에서는 신권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옥수수를 재배하는 좀더 나은 방식 즉, 땅을 갈아 놓는 방식과 토향을 좀더 좋게 만드는 방법 등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을 좀더 잘 돌보는 방법과 자녀에게 알맞은 영양을 제공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노력이 신권을 지향하는 기회로서 상호부조회가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더 자매 : 또 신전을 짓는 위대한 사업도 생각납니다. 또 우리는 십일조와 헌물을 통하여 교회 선교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온 세상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생애를 축복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 자매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신권의 지시를 받아 질서 정연하게 해주는 방식인 것 같군요.

독시 자매 : 그렇습니다. 그 두 방식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제공하신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권의 지도하에 다른 사람의 생활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우리의 관심은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서 교회 전체의 사명에까지 뻗어 갑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 계보 사업, 신전 사업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반스 자매 : 뉴질랜드와 타히티에 있는 동안 자매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원더 자매 : 우리의 목표는 모든 자매가 복음의 이해가 강해지고 다른 자매들 및 신권 소유자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

질문 : 지리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 상당히 다릅니다. 지역 지도자들은 기본 교과 과정을 자신의 필요 사항에 적합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갖고 있습니까?

독시 자매 : 우리는 언제나 지도자들에게 공과를 적당하게 만드는 대신 그것을 채택하도록 권고합니다.



시사르 아에도 : 말하지 않는 이야기꾼

돈 엘 쉘

그가 163센티의 키를 완저히 쪽
일으켜 세우고, 가냘픈 어깨를
바듯이 세우고, 무섭게 인상을 쓰면
히브리 군대를 앞잡아 보는 거만하고
커다란 폴리아이 된다. 다음 순간,
그는 돌팔매 투석기를 갖고 언덕으로
가볍게 뛰어다니는 젊은 다윗이 된다.

그리고는 곧 다음 순간, 무거운
짐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미 대평원을
건너는 지친 개척자가 된다. 그의
팔의 뻘뻘하게 늘어진 근육과 그의
근육질 다리의 힘든 발걸음은 모두
그의 힘든 투쟁을 잘 나타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나 사람들은
가슴속으로 듣고 알아듣는다.

시사르 아에도는 구라파에서
급격하게 유명해지고 있는 광대이다.
그는 불란서의 대가 마르셀
마르세유의 제자였으며, 그 동안
남미와 중미의 여러 국가 뿐 아니라
독일, 불란서, 스위스 등지에서 공공
일반 공연과 텔레비전을 위한 공연을
했다. 그는 1984년에 미국에 데뷔했다.
지금은 서구 유럽에서 최고 서커스

가운데 하나인 KNIE 서커스와 계약을
맺고 있다.

그는 무대 위나 밖에서나
정력적이고 지속적이고 열심인 것
같이 보인다. 그가 자기 배경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 연기할 때의 그의
열의는 그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모든 것에 헌신해 온
거의 전형적인 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아에도 형제는 귀환 선교사로서
페루의 리마에서 태어났다. 재봉사인
그의 아버지에게는 그의 대가족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웠다. 그러나 어린
시사르는 교육받고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는 예언자의 권고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대단히 컸다. 그는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1982년 초등학교 교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또,
나중에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하여
자기 학교 근처에서 자동차 세차와
광택을 내는 일을 했다. 그 선교
사업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으므로 맹장염에 걸렸을 때에도
그 때문에 누워 있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수술받은 지 5일이 지났을 때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가르치고
가가호호 방문을 했다. 그는 사실상,
“저는 일해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교 사업을 마친 후 리마에
있는 빌라리얼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그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예술이었으므로 그런
것도 공부했다. 사실상, 그의 연기
수업은 훨씬 더 일찍인 6살 때
시작되었다. 그때 그는 당시에 다니고
있던 교회의 종교 교육 클래스에

착실히 다녔는데, 그것은 공부가 끝난 후에 어린이용 옛날 영화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버스터 키톤, 찰리 찰플린, 해롤드 로이드의 무성 영화 코메디에 반했다.

신교사들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시사르는 만 9세였다. 그는 11살이 되었을 때 이미 말일성도 교회에서, 자기가 소속된 지부의 재능 쇼에서 연기하고 있었다.

아에도 형제는 빌라리얼 대학에서 공부한 다음 정치학 분야를 더 공부하기 위하여 유럽으로 가고 싶어했다. 그는 남미와 중앙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광대로서 연기를 보이며 유럽까지의 비행기 샅을 모았다. 그는 “재능에 의하여 유럽에 갔으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고 회상한다.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즉각적으로 등록을 못했을 때,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1979년 말과 1980년 초에 걸쳐 여러 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누이에게 가 있었다. 거기에 있는 시간이 정치학 대신 대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과 함께 광대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 아에도 형제는 꾸준히 노력하면 자신의 신앙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파리로 돌아왔으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마르셀 마르세이유를 만날 수 있었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3년 동안 마르세이유씨와 함께 광대 연기술 뿐 아니라 연극, 고전 무용 및 현대 무용, 곡예, 펜싱까지 배웠다. 그는 주말에 연기를 보이고 여름 여행을 함으로써 수업료와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소수의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지금은 그 대가인 마르세이유씨의 스승이었던 86세의 에머엔느 테크릭스에게 배우고 있다. 또 고전 무용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다.

코메디는 그의 예술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의 특별한 연기 가운데 어떤 여행자를 묘사하는 장면이 있다. 그 여행자는 너무 짐을 많이 넣은 가방이 끈짜도 안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 그 가방은 광대의 팔끝에 걸려 있으며, 온 몸의 힘을 다해서 당겨도 움직일 수 없는 것같이

보인다. 마침내 그가 가방을 열고 팽개칠 때 나오는 것은 수건 한 장뿐이다.

그의 예술에는 심각한 면도 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강한 신앙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재능은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덧붙여 말한다. 아에도 형제는 다른 사람들을 명랑하게 해줌으로써, 또 그의 소망에 의하면 인생의 승화적인 면을 묘사함으로써 분명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재능을 쓴다.

그는 경건 이야기를 극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전형적인 몸짓으로 연출해 낸다.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재물을 바치는 겸손하고 성스러운 형제가 된다. 그 다음에는 교만하고 시기심 많고 잔인한 사람이 된다. 관객은 아벨의 경건함과 가인의 분노를 느낄 수 있게 된다.

시사르 아에도의 예술은 또 매우 실제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 왔다. 그는 연기 생활을 통하여 동생 한 사람이 캐나다에서 선교 사업하는 것을 돕고, 동생 두 사람을 파리로 데려와서 학교 공부를 하게 했다.

“저는 가족을 다 도울 수 있었습니다. 자화자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습니다.”

그는 지금 만 30세로서 파리의 싱글즈 워드에 다니고 있다. 현재까지 그의 생애는 일과 공부와 타인에 대한 봉사로 가득 차 있지만 결혼해서 가족을 부양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는 “야 비엔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에서 흔히 쓰는 말로서, “그렇게 될 겁니다.”라는 뜻이다. *



부모가 됨 : 모든 것을 진심으로 행함

패트리시아 티 홀랜드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최 근에 어떤 만 4살의 아이에게 왜 그의 아기 동생이 우느냐고 묻자, 그는 동생을 보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카락도 이도 없고, 다리가 떨리면 누구나 울거예요.”

우리는 모두 울면서, 또 약간 떨면서 세상에 왔습니다. 부모가 아직까지의 한 아픔의 잠재력밖에 없는 것태어난 아기를 맞이하여 그 아기가 완전히 자기 구실을 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때까지 사랑하고 인도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가장 큰 과학의 기적이며 모든 예술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모를 창조하실 때 숨이 막힐 정도로 당신과 비슷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생명을 준 우리는 이것이 가장 숭고한 부름이며 가장 거룩한 직책이라는 것을 원래부터 알고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아무리 작은 실패라도 우리를 무서운 절망에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장 좋은 의도로 가장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노력을 하더라도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싸우거나, 정서적으로 우울해 있거나, 공공연하게 거역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그저 지나치게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조금은 중요하고 있을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계속되는 불안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그들을 그런 괴로운 길로부터 멀리하게 지켜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아이들이 해낼까? 궁둥이를 찰싹 때려줄까 혹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줄까?” 현실은 우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도 자신이 부모로서 나약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나는 최근에 나의 일지로부터 이런 내용을 다시 읽었는데, 이것은 내가 젊고 매우 걱정하는 어머니일 때 쓴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한다. 만일,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내가 모르고 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기도한다. 나는 생각없이 말하고 행했는지 모르는 것에 대하여 자주 마음속으로 울며, 이런 것을 두 번 다시 범하지 않도록 기도한다. 나는 이 애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하고 내가 바라는 꿈을 손상시키는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았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나는 도움과 인도에 굶주려 있는데, 특히 내가 그들을 실망시켰다고 느낄 때 더 그렇다.”

세월이 이렇게 흐른 후에 그것을 다시 읽어 보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초조한 어머니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울 만큼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도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해 왔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하여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것과 미래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득 지고 있는 부모의 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글을 읽는 부모는 누구나 희망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동 성장에 관한 전문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왜 그렇게 용기를 얻었는지를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브리검 영 대학교의 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훈련과는 거의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것은 진심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좀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히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와 대화하지 못하는 것이 기술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에 있어서 기술 문제가 태도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태도가 상한 심령과 겸손한 태도이며 자녀의 복지에 관한 사랑과 관심에 찬 태도일 때, 바로 그것이 대화를 창출해 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그런 노력을 깨닫습니다. 한편, 우리가 성급하고 적의에 차 있거나 반감에 차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고, 우리 감정을 숨기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분별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를 느낄 것입니다.”

물론경의 야곱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시게 하고 싶으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겸손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바보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니이 9:42 참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그러한 겸손이 거룩한 도움을 받는 것과 우리 자녀의 존경을 받는 것을 위한 근본적인 요건인 것 같습니다.

내 딸은 음악에 소질이 있는 소녀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내가 피아노 옆에서, 딸의 옆에 서서 노래 감독처럼 그녀가 연습하는 것을 계속해서 감독하지 않으면 이 재능이 발달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10대 초반이었을 때, 한때는 유용했던 나의 태도가 이제는

분명히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딸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바로 그 문제로 인하여 관계가 점점 더 경직되는 현실 앞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니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때 행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 했습니다. 나는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을 쏟아 내가 이 대화를 열어 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지혜 즉, 천사의 언어로부터 오는 종류의 지혜와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성탄절이 3일밖에 안 남아 있었으므로 나는 메리에게 개인적인 선물과 함께 작은 쪽지를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메리에게, 내가 피아노 옆에서 경찰관처럼 행동하여 갈등을 자아낸 것이 미안하구나. 거기에서 너와 나 및 나의 권총밖에 없는 가운데 틀림없이 내가 바보같이 보였을거야. 용서해 주렴. 너는 너 자신의 권리로서 청년가 되고 있는거야. 내가 걱정했던 것은 단지 네가 재능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버려 둔다면 한 여성으로서 충분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을거봐 염려했을 따름이란다. 널 사랑한다. 엄마가.”

그날 늦게 딸이 나를 찾아와서 우리집의 조용한 구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평생 동안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피아노를 잘 치려면 연습해야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고 바로 저예요!” 그리고는 딸이 팔로 나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 사실을 알려 드리나 하고 늘 생각했어요...그런데 어머니가 그것을 알아내셨군요.”

몇 년 후, 메리와 내가 이 일을 회상할 때 메리는 내가 기꺼이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구나. 용서해라.”고 말한 것이 그녀에게 자신의 가치를 크게 인식하게

해주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 말이 메리에게 그가 부모의 사과를 받을 만큼 합당하며, 때로는 자녀가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개인적인 계시가 오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좀더 어린애처럼 되야 할까요? 우리는 단순히 그들에게 설교하고 지배하고 수없이 반복해서 꾸짖는 대신에 우리의 가장 큰 희망과 기쁨 뿐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고통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에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내 아들 더피는 만 11세이며 학교의 미식 축구팀에 들어 있는데, 3년간이나 계속해서 우리 집의 구석에 숨어 있다가 뛰어나와 직업 선수들이 하는 그대로 나에게 태클을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 공격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램프를 쳐서 넘어뜨렸으며, 오른쪽 팔꿈치가 눈썹 근처에 찢기처럼 움크려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참을성을 잃고 나를 그의 태클 상대로 삼아 바보로 만든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가 양뺨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을 때, 그 대답이 나의 가슴을 녹였습니다. “그렇지만 엄마야말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재미있는 것만큼 엄마에게도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오랫동안 내가 큰 우승컵을 타고 처음으로 인터뷰할 때 할 말을 다 계획해 놓았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할거예요. ‘우리 엄마에게 연습했어요!’라고 말이에요.”

어린이는 누구나 어머니에게 연습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가 자신의 구원을 이룩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처음에 나는 우리가 누구나 울면서 세상으로 들어온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인생의 모든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때때로 한두 방울의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게 되리라는 것은 아마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그들이 우리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장막 뒤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완전한 소망의 밝은 빛을 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하늘에서 설제한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대하여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는 결코 우리 자녀에 대하여 또는 자신에 대하여 포기하면 안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자녀가 반항할 때

가족 지침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가 다 이렇게 성장하지는 않으며, 반항적인 자녀를 갖게 되는 부모가 많이 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염려로는 순종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사랑받고 가르침받은 자녀도 반항할 수 있다. 이런 자녀는 고의적으로 중요한 가족 규칙이나 복음 원리에 불순종하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항적인 행동을 하며, 자기 행동에 대하여 전혀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을 때도 흔히 있다. 그들의 행동에는 고질적인 신성 모독, 부도덕, 알콜과 마약 복용, 학교의 무단 결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반항적인 행동은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흔히 있다.

우리 자녀는 자유로히 선택할 수 있으므로 때로는 선택을 잘못한다. 비록, 우리는 어떤 사람도 강제로 의롭게 만들 수는 없지만 훈계와 모범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성신의 영향을 느껴 의를 행하도록 기도할 수 있다. 반항적인 자녀가 있다는 것은 좌절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경험이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직 많이 있다.

자녀에게 해결되지 않은 욕구가 있을 때 반항적인 행동이라는 결과가 흔히 생긴다. 우리 가정에 사랑과 존중에 찬 분위기가 없다면 우리 자녀가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녀에게는 성장하고 발달하고 결정할 자유가 필요하며, 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배운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온갖 규칙으로 질식하게 만들거나 너무 가혹하고 까다롭게 굴면 자녀가 단지 우리를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반항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허용해 주고 충분한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지 않는다면 그들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반항할 수도 있다.

또 우리가 나쁜 모범을 보이는 것을 본다면 반항하는 쪽을 택할 수 있다. 우리는—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을 범하면서—자녀가 순종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지 않은 비디오 테이프를 집으로 가져와서 “나쁜 장면”은 지나가도록 빨리 테이프를 돌리고(이미 그 영화를 보았으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자녀는 좋은 영화만을 택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때로는 어린 자녀가 가족 규칙에 순종하지 않으므로써 자신의 독립을 실험한다. 이런 종류의 행동을 무시하는 것은 실수다. 우리 자녀가 가족 규칙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독립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엄하고 공정하게, 또한 지속적으로 한계를 정하고 시행해 간다면 나중에 더 심각한 반항을 피하게 해줄 수 있다.

부모는 자기 자녀의 비행에 대하여 흔히 자신을 탓한다. 이것은 올바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우리 자녀는 가족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자신을 탓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생산적이 못된다. 우리는 이런 패배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회 모임이나 장소나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가 너무 많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반항적인 아이를 돕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좀 살펴보자.

아마 우리가 맨 처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면밀하고 분명히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십이사도 평의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가장 아픈 면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잠시 그들을 그대로 한편으로 쳐놓고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에 열중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개조되어야 하는 것은 자녀 쪽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하던 그대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것이며, 여러분은 과오를 범하고 있으면서 자녀의 행동에서는 그런 과오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경계를 요하는 편은 자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도움이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신앙이나 종교나 복음의 원리를 무시한 치료 방법을 찾는다면 끝내 찾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알고 계시니

여하한 문제라도 부딪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은 그러겠지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성도의 벗, 1971년 5월호, 26-27페이지)

우리는 부모로서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고 바꿀 필요가 있다. 부모가 취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행동은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수립하는(또는 처음으로 수립) 것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 자녀가 외롭고 무시당하고 또는 가치없는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에 반항하는 일이 흔히 있다.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나쁜 품행을 저지르는 방법을 이용한다. 자녀에게 시간을 할애하면 그가 이런 느낌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관계를 개발하는 데는 시간과 희생이 요구된다. 우리는 자녀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어머니는 적의를 품고 있었던 딸과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최초의 시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딸은 한동안 집에서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행동 즉 음주, 밤늦은 파티, 학교 결석 등을 하는 소녀의 무리들과 사귀고 있었다. 곧 그 소녀가 부모와 대화하는 것은 큰소리로 비난하는 이야기로만 일관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마침내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멀리까지 악화되었는가를 깨닫고 그것에 관해서 무언가를 행하기로 결심했다.

그 딸은 어떤 종류의 활동에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매일 아침 어머니가 자기를 학교까지 차로 태워 주는 것은 마다하지 않았다. 처음 몇 주는 상당히 긴장되어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비판하거나 탓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어머니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생활과 느낌을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아침에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 친밀하고 편안한 대화의 시간이

되었으며, 그 어린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충실한 친구라는 것을 알았다.

반항적인 자녀에게는 우리의 지속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비록, 우리가 그들의 행동에는 찬성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가족의 테두리 안에 둘 수 있다.

반항적인 자녀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가 우리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길을 계속해서 가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미망인 자매는 십대의 아들이 집에서 담배피우고 싶어하자 그들의 집을 다스리는 규칙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지만, 이 집에서는 복음 표준을 존중하고 있다.” 아들이 그러면 집에서 나가겠다고 위협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네가 여기에 오는 것을 언제든지 환영한다. 또 네가 어디에 살든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여기 있을 때에는 이 집의 규칙은 항상 똑같다.”

우리는 반항적인 자녀로 인하여 가족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비록 반항적인 자녀가 우리의 시간과 일할 수 있는 힘의 큰 몫을 차지하더라도 우리의 다른 자녀들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 우리는 말썽을 일으키거나 반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고 있다.

또, 배우자에 대하여 배려하고 단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반항적인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나누어져서는 안된다. 변화할 희망은 있으나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도움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야 한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로렌 시 던 장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식이 방탕하고 도덕의 표준을 무시하며 부모가 저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저들의 행동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할 때, 자식들이 철저히 거부하고 대항하면 그 자식들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둘러보는 이 시대의 참상은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더러는 이미 문제를 한아름 안고 또 더러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를 옳바로 이해한다면 이들이 하나님께는 안전하게 우리 안에 있는 자들보다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닥치는 어려움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를 인생의 그늘과 위험하고 황량한 벽지에 버리려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철이 늦게 들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철이 들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될 때 우리가 저들을 낙심케 해서는 안될 줄 압니다.”(성도의 벗, 1971년 5월호, 24-25페이지)

우리는 결코 우리 자녀를 포기하면 안된다. 우리가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왔고,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을 변화시키고, 항상 그들을 사랑한다면 수많은 반항적인 자녀가 그들의 품행을 고칠 것이다.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으나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반항적인 자녀로 인한 짐을 혼자서 지고 갈 필요는 없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 짐을 나누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감독, 가까운 친구, 카운셀러, 비슷한 경험이 있는 다른 부모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한 가장 큰 지원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는 항상 자신의 걱정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다.

의로운 부모에게 반항적인 자녀만큼 큰 고뇌를 안겨다 주는 것이 없다. 자녀가 가족의 규칙과 계명을 깨뜨리는 정도가 심해지면 부모를 폭발 상태에까지 압박할 수 있다. 그러나, 죄의식과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에 빠져 드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그렇게 하는 대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향을 주어 변화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영감을 통하여 주시므로써 그런 행동을 참을 인내심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축복하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그가 하실 모든 일이다. 우리 자녀는 결국

우리 자녀는 자유로히
 선택할 수 있으므로
 때로는 선택을 잘못한다.
 비록 우리는 어떤 사람도
 강제로 의롭게 만들 수는
 없지만
 훈계와 모범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성신의 영향을 느껴
 의를 행하도록
 기도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나 우리나 그들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자녀가 의롭게 될 권리와
 나쁘게 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기
 부모가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 자신과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코리스틴 사이언스
 모너터, 1970년 9월 9일, 로렌 시 덴
 장로가 1970년 12월 임프르브먼트
 이터에서 인용했음) *

시작하자.

일단 이 기사를 읽으면 다음
 내용이 그것을 자기 가족에게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 만일 자신에게 반항적인 자녀가
 였으면 그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나
 무관심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생각해 본다. 그에 대한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할 수
 있나? 어떤 주제 어떤 것을 할 수
 있나? 그와 함께 어떤 규칙을 세울
 수 있나?

2. 자신의 행동을 더밀히 살펴본다.
 그 중에 자녀를 반항하게 만들 수도
 있었던 것이 하나라도 있나?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나?

3. 자기 자녀에게 어떤 관심과
 취미와 친구가 있나? 그가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있나?
 그가 어떤 음악을 듣나? 그 중에
 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나? 자신이 그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한다.

4. 자녀에 대하여 기도해 왔나?
 필요하면 금식한 적이 있나?

하와이에서의 어느 날 이후

크리스 맥케이

그 소리는 고든 매니엘스가 무엇보다도 잘 기억하는 것이었다. 3내지 5미터의 높은 파도가 바위를 때리며 대기를 길은 안개로 가득 채우고, 공기 그 자체를 거의 액체처럼 되게 할 때 그 파도의 무자비한 부딪힘의 소리이다. 그 소리는 말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했다.

그날은 하늘이 흐렸는데, 파란 하늘에 솜털같은 흰구름이 평화롭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불길했으며, 바람이 절벽을 따라 으르렁거리며 몰아쳤다.

그날 오후, 24명의 십대 소년이 두 달 동안 파인애플 따는 일을 한 다음 하와이의 서쪽 마우이 북쪽 해변에서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날은 마지막 1주일의 노동을 앞둔 마지막 휴일이었으며, 일이 끝나면 1주일 동안 이 섬을 즐겁게 여행하고 미국 본토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든이 담당하는 소년들은 이미 주머니에 여행자 수표를 찢어넣고 있었다. 그들은 바나나를 향하고 있는 바위에 난 구멍을 통하여 파도가 분수처럼 밀려 들어가는 장관의 물구멍에 대하여 들었다. 그 물구멍은 그 섬의 반대편에 있는 미끈한 바위 탁자의 가운데에 나 있었으며 소년들이 그것을 보자고 했다.

그들은 모두 놀랐다. 그 북쪽 지역은 황량했으며, 그때까지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하와이처럼 녹음이 우거진 푸른 모습은 아니었다. 그 지형은 달의 사진을 연상시켰다. 어느 방향을 보아도 풀잎, 나무, 살아 있는 수목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해변에는 모래 한 알 없었다. 날카로운 톱니 모양의 용암석이 뾰족하게 물 가장자리 밑으로 뻗어 있었다.

12명의 소년이 한조로 된 두 무리는 각각 책임자가 인솔하는 가운데 그날

함께 차를 탔는데, 트럭과 밴트럭을 타고 여행했다.

덕 칼슨이 인솔하는 소년들은 고든의 팀보다 2, 3분 먼저 거기에 도착했다. 고든과 그의 소년들은 그 바위 탁자의 평평한 면을 향하여 험한 언덕을 천천히 내려가면서 6, 7명의 친구들이 이미 그 구멍 주위에 앉아서 그 가장자리에 발목을 내리고 걸터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그것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물이 밀려 들어오기 몇 초 전에 발을 빼내는 것이 매우 재미있었다. 35초 내지 40초마다 다시 파도가 그들 밑의 바위를 때리고 무섭게 압력을 가한 물줄기를 그 구멍을 통하여 보냄으로써 물보라를 분출시켰는데, 그것이 15미터나 대기로 쏘아 올려져서 잠시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짹! 하는 소리를 내며 1미터 가량 되는 구멍을 통하여 도로 빠져 나갔다. 정말로 멋있었다.

그 지역 전체가 미끄럽고 축축했으므로 고든이 맡은 소년들은 친구들을 만나러 서둘러 가면서 그 구멍의 바다를 향한 면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 주의시켰다. 그들은 절벽 위로 미끌어지는 모습을 상상하고 벌벌 떨었으나 그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그저 막연한 것일 따름이었다. 누구도 그런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

그 순간, 아무 예고없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물줄기가 폭발했는데, 그 힘 때문에 그들은 위에 걸려 있는 바위로 8미터나 달아나게 되었다. 갑자기 이런 비명 소리가 났다. “마이크가 어디갔지?” 그러자 누가 이렇게 울부짖었다. “그 물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본 것 같아.”

그 물소리가 원수의 소리가 되자, 그 소리가 우리 귀에 얼마나 다르게

들리게 되는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신났던 것이 무서운 공포로 변했다.

대경 실색한 두 책임자가 펄쩍 뛰어가서 그 깊은 물구멍 속을 들여다 보았다. 그곳은 역청같이 까맣게 보였다. 그 순간, 그들은 다음 물줄기 때문에 쫓겨 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이크가 사라진 먹물같은 암흑 속으로 헛되이 찾아 보았다.

그들은 미친듯이 그의 이름을 불렀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 세 번이나 물줄기가 대기로 치솟아서 그들을 물러나게 했으며, 그들은 그때마다 다시 달려와서 그 바람소리에 맞서서 밑을 보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세번째 물줄기가 치솟고 네번째 물줄기가 치솟기 전에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은 놀랄만큼 똑똑했다. “그래, 나 여기 밑에 있어. 그렇지만 무사한 것 같아.” 그들은 안도와 함께 힘이 빠졌다. 물줄기가 치솟을 때마다 마이크의 시체가 산산조각이 나서 올라오는 것이 보일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소년들이 모두 바지를 벗어 하나로 묶어서 임시 로프를 만들었다. 밑에서 응답이 끊겼다. 그들은 감감한 속으로 로프를 내리며 마이크에게 그것이 내려가면 잡으라고 목이 쉬도록 외쳤다.

그러나, 결코 끊이지 않는 그 낭패케 하는 파도가 해변을 강타했으며 그 끝없는 물보라가 계속되었다. 그들은 두 번이나 로프를 내렸으며 그때마다 그것은 그들 얼굴로 다시 튀어 올라왔다.

마이크와 특별히 절친한 친구가 직접 그리로 기어 내려가겠다고 했으나 그 생각은 곧 반대에 부딪혔다. 수세기나 물이 오르고 내리면서 그 바위 표면에 반란이 될

만한 것은 모두 다 씻어가 버렸다.
그는 용감했지만 그의 생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덕 칼슨은 몸을 구부리고 앉아서 그
구멍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백짓장같이 하얗게 되어
있었다.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를
구해야 해.”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만 저쪽에서
어떤 물체를 보았으며, 그들은 그것이

마이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쿨크 마개처럼 아래 위로 흔들리고
있었다. 의식을 잃은 것이 분명했으나
이상하게도 그의 머리는 위로 향하고
있어서 물 밖으로 나와 있었다.

덕은 펄쩍 뛰어 일어나며 이렇게
외쳤다. “내가 가서 구해야 돼.”
고든이 “수영할 줄 알아?”라고
소리쳤다.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내가 맡은 아이야. 일단

시도해야 해.”

그러자, 그레그 파커가 곧 큰소리로
말했다. “내가 수영할 줄 알아요. 나는
독수리 소년단원이예요. 나는 인명
구조원 배지를 받았으며 틀림없이 할
수 있어요.”라고 그 파도 소리를 뚫고
고함을 질렀다.

그래서 훌륭한 외모에 운동 선수인
그레그가 타고난 자신감을 갖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위를 건너서



파도 속으로 들어갔으며, 그동안 마이크는 점점 더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용암 바위의 날카로운 모서리로 더 가까이 밀려가고 있었다. 그래그는 힘차게 물을 헤치고 마이크의 걸음으로 가서 그를 넓은 바다로 다시 끌고 갔다. 그는 그의 가슴을 자기 팔에 둘러안고 수영했다. 마이크는 충격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래그는 그를 한 팔로 안고 모세비 수영(횡영)을 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 만일, 해변으로 수영해 나간다면 그 두들기는 파도가 그들을 그 바위에 부딪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물이 그들의 머리 위에서 부서져 내렸으므로 계속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바닷물은 짜며 그것을 삼키면 자기도 모르게 구토가 나게 되고, 아무리 강한 수영 선수라도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그의 온 몸이 그 영향을 받았다.

이 무렵, 그들은 다시 그 바위가 노출된 곳으로부터 6미터밖에 안 떨어진 곳으로 다시 밀려왔다. 무력한 방관자들은 그래그가 “도저히 못하겠어. 도움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을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스티브 더들리가 “그래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라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움직이기 전에 그 노한 바다 속으로 뛰어 들었다. 이제 걱정해야 할 소년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이크가 조금씩 정신을 찾는 동안 그 두 사람에게 가는 데 성공했다.

마이크는 파도가 무섭게 빠져 나가는 통에 물구멍을 통하여 빨려나가 바위 표면으로부터 3.5미터 가량 낮은 암봉(바위의 선반같이 생긴 곳) 위로 떨어질 때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그는 잠깐은 가까스로 거기에 꼭 붙어 있을 수 있었으나 오랫동안 그럴 수는 없었다. 바다로 무섭게 빠져 나가는 여러 톤이나 되는 물의 흐름이 그가 꼭 붙잡은 것을 놓게 하고 수영으로 된 터널을 따라 내던져 바다 가운데로 빨아 넣던 것이다.

이제 그래그와 스티브는 함께 애써서 마이크를 바위로부터 떨어져 바다 속으로 더 멀리 가게 해주었으므로 이제 당분간은 비교적

안전하게 되었다. 고든은 다른 팀의 책임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잠깐 혼자서 생각해 봐야겠어. 곧 돌아올게.”

그는 혼자 있을 수 있는 큰 바위 뒤로 가서 주님께 간절히 호소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소년들이 안전하게 바다 밖으로 나오게만 해주신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또는 갖게 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쁘게 바치겠다고 약속드렸다.

고든은 바위 담장 뒤로부터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약 12미터 되는 곳에 있는 작은 만을 보았다. 그곳도 바위가 있었으나 약간은 가리어져 있었다. 아마 그 소년들이 저기까지 갈 수 있다면 헬리콥터를 부를 때까지 매달려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20분간이나 파도와 싸우고 있었으며 그들이 급격하게 피로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바람과 파도 위로 그들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해변 위의 소년들은 모여서 둘러 앉아 무릎을 꿇었다. 고든은 한쪽 옆으로 비켜섰다.

그의 마음속으로 거의 음성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러나 똑같지는 않게 “너는 바다를 잠잠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첫 반응은 자신이 그런 권세를 부르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큰 충격이었다. 모세는 바다를 갈랐지만 자신은 그저 단순한 고든 매니엘스에 지나지 않았다. 자신의 이해력을 너무나 멀리 떠나는 어떤 것을 시도한다는 생각이 그를 겁먹게 했다.

그 느낌이 다시 들었으며, 또 세번째로 그런 느낌이 들었다. “너는 바다를 잠잠케 해야 한다.” “언젠가 내가 신권의 권능을 잘못 사용했다는 책임을 지게 될까?”라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빼고는 그 느낌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는 하늘을 향하여 팔을 치켜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기에 빠진 소년들이 구조받을 때까지 파도가 잠잠해지라고 명했다. 원을 지어 기도하던 사람들이 해산해서 고든이 두번째로 그 명령을 반복할 때 그의 주위에 모여 들었다.

곧 그렇게 무자비하게 밀려오던 그 삼킬 듯한 파도가 좀더 잠잠해졌다. 그러자 두 개의 큰 파도가 서로 반대편으로부터 생겼는데, 이전에는 이 방향에서 파도가 생긴 적이 한번도 없었다. 이 파도는 지치고 거의 생명을 잃고 있는 수영자들이 불에 빠지지 않고 떠 있으려고 안간힘을 펴고 있는 곳으로 각도를 이루며 밀려왔다. 그 각도를 이룬 파도들이 소년들을 떠올리고는 그 작은 만으로 15미터나 더 가까이 밀고 갔다.

지켜보고 있던 소년 한 사람이 벌써 트럭으로 달려가서 스티브로움을 갖고 왔다. 두번째로, 한 쌍의 파도가 처음과 똑같이 합쳐져서 그 수영자들을 남은 거리로 밀고 가자 그는 그 쿠션을 찢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들에게 던졌다. 이제 그들은 그 만의 보호로부터 3미터 거리에 들어와 있었다. 스티브가 그 쿠션을 받아서 파도타기 널빤지처럼 마이크의 밑으로 밀어 넣었으며, 몇 초 후에 그들은 구조자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도달했다.

남은 문제는 그 보호받는 지역의 해안선도 나머지 그 황량하고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뾰은 바위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었다. 아직도 처리해야 할 바위가 있었으며 돌연히 나타나 두번이나 그들을 밀어 준 파도가 또 그들을 그 타협을 모르는 바위에 부딪치게 해서 산산조각으로 낼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다.

고든은 그런 파도가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본 순간 달리기 시작했다. 그 피로에 지친 수영자들이 그 만에 도착하기 전에 거기에 닿아야 했다.

그는 허벅다리 중간까지 물에 잠긴채로 나아가서 마이크에게 손을 뻗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 파도가 다시 쳐서 물이 솟아올라 두 사람을 모두 완전히 덮어 버렸다. 그는 두 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들고, 숨을 멈추고, 마이크를 물을 가로질러 위로 올려 바위 위에서 기다리는 손길로 넘겨 주고, 그래그에게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스티브는 쿠션을 버리고 고든이 그에게 도착하기 전에 바위 위로 튕겨져 올라갔다. 그의 갈비뼈와 옆구리가 심하게 굼했다.

마이크는 흐트러진 상태였으나 세 사람 모두 물 밖으로 나왔으며 살아 있었다. 모두 다 힘이 쭉 빠진 것을 느꼈다.

맨 처음 깜짝 놀라서 “마이크가 어디 있지.”라고 비명을 지른 지 약 45분이라는 격앙된 시간이 지났다. 그들은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원조의 손길에 힘없이 몸을 기대며 숨을 돌릴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거기에서 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고든은 즉시 그들을 완전히 철수시켜야 한다는 무서운 절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그들은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한 소년이 그들이 함께 묶어서 연결하여 후미진 바위 위에 버려 둔 바지 주머니에 있는 여행자 수표를 생각했다. 그는 그것을 찾아오기 위해 물구멍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고든은 “안돼! 내버려둬. 여기서 빠져 나가자.”라고 고함을 쳤다.

그들은 마이크를 팔에 안고 운반했으며, 고든이 맨 마지막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려고 돌아섰는데, 그때, 한 줄기 햇빛 기둥이 구름을 뚫고 나왔다. 거의 5시가 다 되어 있었다. 그는 탈진 상태였으나 감사했다.

그가 바다를 향하여 볼 때 새로운 종류의 파도가 그를 향하여 밀려왔는데, 그 끝이 다른 것처럼 거칠지 않고 미끈했다. 그는 그 파도의 물마루에 검은 구멍이 열리는 것을 흘린 듯이 지켜 보았다. 가장 검은 부분이 밀리더니 정확하게 그 바지 로우프의 위에 떨어졌다. (그 지점은 바로 몇 초 전만 해도 그들이 있었던 곳이며 돌아가는 것을 놔두었다면 적어도 한 소년은 서 있었을 곳이었다.) 그것이 다시 바다로 빠져나갔을 때, 그 바위는 깨끗하게 되어 있었다. 바지가 있었던 흔적은 죄다 사라져 버리고 마치 한번도 거기에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삼켜져 버렸다. 그들은 가능한 한 높은 절벽 위까지 마이크를 운반했으며, 거기에서 캠프를 향하여 발길을 돌리기 전에 멈춰 서서 그를 수건으로 감싸 주었다. 그들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내의를 입고 걸어갈 때 상당한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그 지방 소방서가 마이크, 그레그, 스티브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해 주었다. 그들이 부상입은 것이라고는 스티브의 갈비뼈 있는 곳이 찢어진 것과 마이크의 폐 속에 약간의 소금물이 있는 것뿐이었다. 의사들은 밤새도록 마이크를 두고 관찰했으며, 그가 살아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그 물구멍으로 떨어져 들어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스티브와 그레그는 마우이 군수로부터 그들의 뛰어난 영웅적인 행동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고든은 아직도 그 황량한 마우이 해변에서 그날 오후 그렇게 무력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면 무서워서 등뼈에 찬 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고, 그 기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에 대하여 경이감을 느낀다. 그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잊지 않았다. *





샌디 유타 이스트 스테이크, 샌디 20와드의 켄트 이 펠시퍼 감독

저는 집사로서
성찬에서 빵과 물의 순서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빵을 취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면
그가 물을 먼저 취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빵을 취하도록
제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신 성찬 주제에 관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집사로서 통찰과 영감받은 정신을 갖고 자신이 성임받은 직책과 의무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론 신권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맡은 주님의 심부름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성찬 상징물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전달하고 축복하는 아론 신권 형제는 교회에서 더 어린 회원들에게 큰 동기를 부여해 주는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동안에 직접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마 26:26-28) 이 주목할 만한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형과 부활이 있기 조금 전에 일어났습니다. 희생 제물은 끝나고 그 대신에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의 제물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성약이 제정되어 회개하고 침례받을 때 효력을 발휘하고, 매주 성찬 빵과 물을 취할 때 새롭게 됩니다.(교성 20:71-74) 이 성약에는 피를 흘리고 육신의 고통을 겪으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며지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주신 성약을 기억할 것을 증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교성 20:76-79) 그때 약속된 한 가지 결과는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도록”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집행되는 그 성찬식에 관하여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판단으로는 성찬식은 교회의 모든 모임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스러운 모임입니다.”(구원의 교리, 부르스 알 맥콩키 저 제3권, 북 크래프트사 출판 1954-56, 제18장)

198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가 성찬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성찬 찬송이 개인적인 변화에 공헌하도록 노래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영을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고 배웠으며, 성찬 찬송을 불러야 하는 거룩한 시간에 그 정신과 영합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찬송가의 말씀을 노래했을 때, 우리의 영은 이 거룩한 의식을 이해하도록 더욱 잘 준비되었습니다.”(1983년 4월 연차 대회)

이 절차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니파이삼서 18장에서 이 의식의 순서와 형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사 떡과 포도주를 그 앞에 가져 오게 하시고,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명하시니, “저들이 이를 먹고 배가 부르케 된지라, 제자들에게 명하사 무리에게 나눠 주게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명하사 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라 하시고, 무리에게도 주어 마시게 하시니,”(니삼 18:1,3,4,8)

비록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성약을 맺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주님이 정하신 순서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내가.....너희에게 준 것 같이 너희는 언제나 이를 행하며.”(니삼 18:6) 이 의식의 완전한 순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교회를 조직할 그 “정확한” 날을 계시로 받을 때 강조했습니다.(교성 20편 서문) 이 20편과 다른 성구에서도 성찬 기도의 정확한 문구(교성 20:77,79; 모로 4:3,5:2)와 떡과 포도주를(나중에는 물) 집행하는 순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도문 사이의 문구가 조금 다른 것은 아마도 점점 더 약속할 것을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떡의 축복문에서는 “저희들이 기쁘게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의 축복문에서는 “저희들이 항상 그를 생각함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집행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경험의 그 신성한 부분이 우리의 젊은 시절의 생애를 축복할 뿐 아니라 주님의 신전에서 경험하게 될 더 많은 “정확한” 성약과 의식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



마크 이 허스트,
본부 청남 위원회 집행 서기

성찬 축복 기도에서
실수하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혹은
그 문장만 다시하면 됩니까?

성찬은 교회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의식의 하나입니다. 그 의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성찬을 받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 모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대한 그 의의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침례받을 때 맺은 성약을 매주 새롭게 함으로써 참여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생활하도록 다시 약속하게 해줍니다.

성찬대에서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임무를 맡은 합당한 제사나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이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의 영적인 경험을 강화시켜 줄 독특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성찬 기도는 실제 성구이므로(모로 4:3; 모로 5:2; 교성 20:77,79)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물에 대하여 축복을 간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함당하고 경건하게 드리는 사람은 의식이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제사 연령 청남용 아론 신권 교과 과정 자료에서는 기도문을 암기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목적과 기도의 의미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도 이 의식을 집행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의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준비와 연습을 하면 기도를 할 때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래도 기도는 준비한 카드나 경전을 보고 읽게 되지만 그 기도문을 읽을 사람이 기도문을 잘 알고 외우게 되면 경건하게 또한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지식을 가지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때때로 실수를

합니다. 쉽게 그 실수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써 좀더 자신을 갖게 되고 실수할 가능성을 줄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집행하는 사람이 실수하고 그것을 즉시 고친다면 기도를 전부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하는 사람이 그 실수한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알아내서 당황하지 않고 기도를 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감독의 책임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성찬식 모임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식 그 자체의 중요성 뿐 아니라 여기에서 성찬식의 나머지 순서의 분위기가 정해집니다. 이 의식은 참석한 사람이 성령에 일치하여 그 뒤에 따르는 복음 가르침으로부터 좀더 충분한 혜택을 받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성찬대에서 집행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도와 주며, 그 축복에 대한 큰 경외심을 갖고 행하여야 합니다. *



조우 제이 크리스텐슨, 전 유타주
프로보의 선교사 훈련원장

어떻게 하면
나의 선교사 동반자와 더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선교사 동반자와 잘 지내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선교 사업에
있어서 성취할 필요가 있는 가장
중요한 달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동반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이
있습니다.

1. 동반자에게 봉사하기로 자신과
약속함.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한
가지 방법은 매우 개인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같이 지내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어떤 두 동반자는 한
사람이 병이 나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을 동안 이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블레이크 장로는 그의
병든 동반자를 간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

했습니다. 웨이트 장로는 깨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자기가 열이
나서 잠든 동안에 블레이크 장로가
자기 쿠트를 닦고 윤을 내었으며,
자기 아파트에 있는 모든 것을 잘
정리해 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웨이트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동반자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좀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서로에 대한
감사와 참된 우정이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2. 매일 함께 공부하고 기도함. 복음
메시지에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동반자들이 매일 기도하는 태도로
경전과 복음의 위대한 원리를 매일
연구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차이도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 특히 동반자와 함께 기도할 때
자기 동반자처럼 훌륭한 성품을 많이
타고난 사람과 함께 봉사할 기회를
갖은 것을 얼마나 큰 특권으로
생각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차이점을 극복하고 잘
지내도록 기도하십시오.

3. 차이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약점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일을
어렵게 하는 독특한 개인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살았던 분 중에 완전한 분은 꼭 한
분밖에 없었으며, 그분은 물론
구세주이십니다. 나머지 사람 즉,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선교사 동반자들은

정규적으로 “동반자 협의 모임”
시간을 갖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들은 매우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좀더 훌륭한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자기
동반자에게 정규적으로 물어야 하는
좋은 질문입니다.

4. 선교사로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모든 것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자신과 약속함. 자신이 올바른
원리대로 생활한다면 동반자는 당신이
선교사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 대하여 부정적이 된다고 하는
구실을 절대로 못 만들게 됩니다.
선교 사업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과 짝이 된 동반자에게는
정말로 큰 부담이 지워집니다. 어떤
선교사는 자기 집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아침에 동반자를
잠자리에서 일으켜서 진지하게
일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요즈음
여기에서는 정말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반자가 결코 여러분에게
대하여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동반자와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자기 동반자와 함께 잘 지내는 것을
배우는 선교사는 온갖 종류의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사람과 잘 적응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그들이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도록
도와 줄 뿐 아니라 선교 사업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자신의 일, 교회
봉사 및 특히 자신의 결혼과 가족
생활에서 성공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

지금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다른 시대에 살았더라면 하고 소원하는 것은 때로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경 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그 시절에 살았던들…… 나의 영혼은…… 기뻐하였을 것이나.”(힐 7:8) 그러나 그 지도자도 어떤 특정한 시기에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이 우리 시대에 어떤 특정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 만큼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이 시대는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예언이 성취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대, 특별한 약속과 뚜렷한 대조와 축복된 재확인 시대에 살 것입니다.

나의 견해로는, 여러분은 자라나는 세대로서 옛날의 일부 젊은이들의 실패를 피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사사기 2:10)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또 다른 세대가 경험한 슬픈 결과를 피하게 될 것이며, 그 세대에 관해서는 이런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보라, 저들의 자녀들이 차차 장성하여 나이가 차며 스스로 나아가 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잠언 이설에 빠져, ”(니삼 1:29)

그리하여 여러분도 똑같이 교회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 친구 몇 사람이 “주 저희 하나님을 완전히 잊”(엘 47:36)고 떨어져 나가 배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18세의 젊은이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가 무섭게 바로 이차 대전에 나갔으며, 나의 축복사 축복문 사본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몹시 더러워졌습니다. 나는 태평양 오키나와 섬에서 전투하는 동안 어리고 겁먹은 보병으로서 위안과 확신을 받기 위하여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 직전의 고등학교 생활은 나의 자존심을 위기에 몰아 넣었습니다.

농촌 클럽 사업으로 배지를 키우는 일은 일부 사람과 나의 사교 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심한 여드름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키가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농구팀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영커서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내게 개인적인 실망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찬 가정과 “선하신 부모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생각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자라나는 말일성도 세대의 여러분 가운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지닌 세 젊은이의 성품 가운데 일부를 영적으로 더 지닌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느브갓네살왕의 금상 앞에 엎드려 예배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불타 죽게 될 즈음에 이르렀을 때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에 속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대하여 무조건적인 신앙과 신뢰심을 갖고 있었으며, 주님이 그들을 구해 주시든 안 구해 주시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전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전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 3:17-18)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훈계한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벧전 4:12)

오늘날 여러분의 이 시대에 내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의로운 반사판을 개발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유혹이 올 때마다 다시 그것을 다루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고민해야 하는 사람은 시간을 잃을 뿐 아니라 영혼도 잃을 수 있습니다.

2. 기쁨과 쾌락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의 웃음에 의하여 잘못 인도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안도시키려고 하는 외로운 군중에 불과합니다.

3. 신앙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여러분을 지켜 줄 것입니다.

4. 깨끗한 즐거움을 누리되 기쁨에 대하여 진지해지는 것을 배우십시오.

5. 세상에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달라지십시오.

6. 마약, 술, 음화, 부도덕 등을 그 실재 모습 그대로 즉,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와 행복의 기회에 대한 담대하고 직접적 공격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런 것은 몸과 마음을 파괴하고 영혼의 고상한 꽃봉오리를 불태워 버립니다.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그 능력을 파괴하게 됩니다.

7. 자신의 기분이 자신의 믿음을 공격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회적 달력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든 또는 기록되어 있지 않든지 상관없이 물문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진실입니다.

8. 여러분이 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숙해 감에 따라 주는 날로, 달은 주로, 연도는 달로 바뀌어 집니다. 조만간 여러분은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도 함께 흐르니 우리에게 마치 한 조각 꿈이요.”(야 7:26)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열심히 몰두하는 동안에 시간이 가장 빨리 지나갑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칠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창 29:20)

9.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이 교회가 그의 교회이며, 그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은 하나뿐이며 쉬운 길이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요 7:17)

10. 자신에게 또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제나 다 설명할 수 있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대의 니파이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은 알고 있으나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하나이다.”(니일 11:17)라고 말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시간과 이 상황에 부름받고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며,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할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권세를 갖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해도 현재의 여러분에게 만족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같이 될 것입니다.(마 24:37-42 참조)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는 교회가 성장하고 그 회원이 온 세상 지면으로 흩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니일 4:14 참조)

점점 더 많은 신진 뿐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교회의 스테이크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땅으로부터 평화가 거두어져 간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교성 1:35) 그러나,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가슴과 가정내에서 주님의 평화를 지닐 수 있으며, 그 평화는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요 14:27; 빌 4:7 참조)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부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의 사랑이 차갑게 식는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마 24:12 참조) 그러나,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가슴과 가정 안에 사랑을 지닐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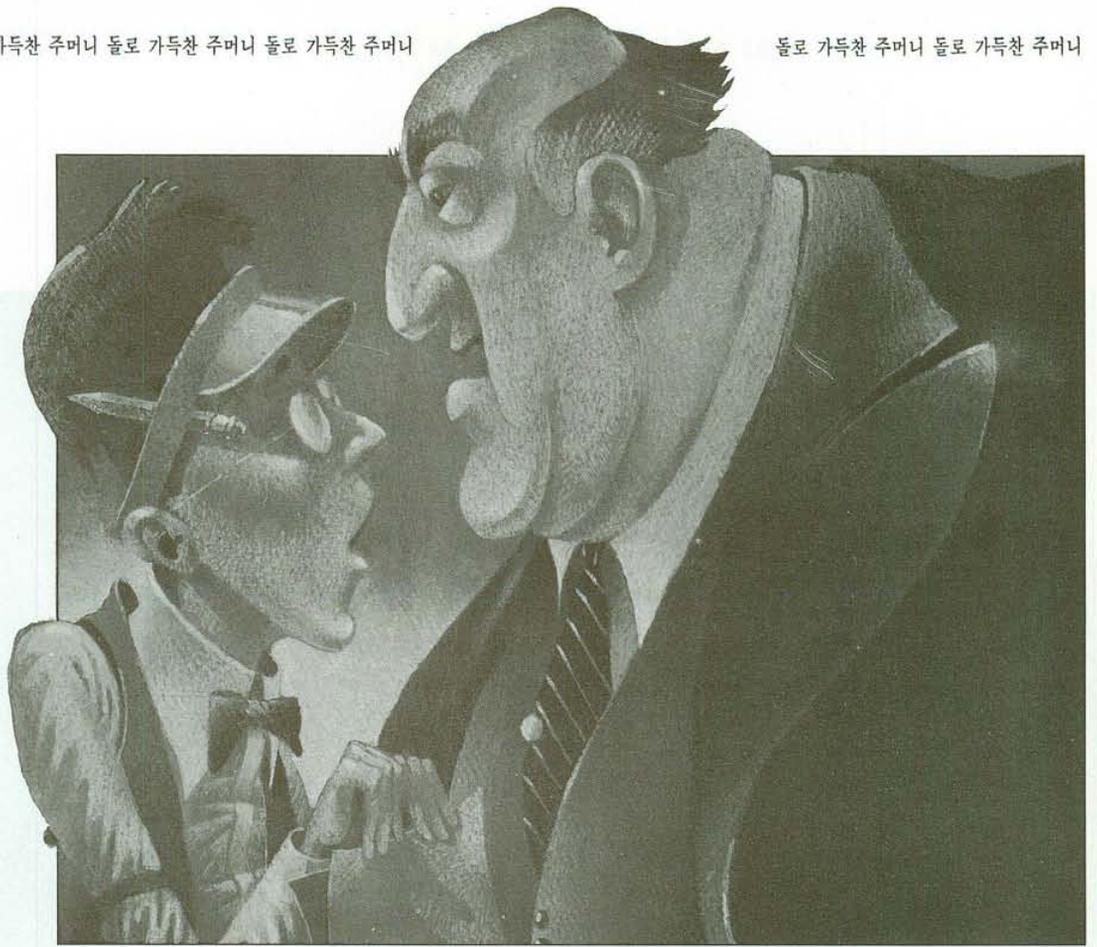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이 부정으로 인하여 인간 환경에 대하여 절망하는 시대에 살 것입니다.(모로 10:22 참조) 그러나, 여러분은 “크신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니일 14:14)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안내하실 것입니다.

“또 너희는 지금 모든 것을 감당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나 기운을 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요, 왕국은 너희 것이요, 그 축복도 너희 것이요, 영원의 재물도 너희 것이니라.”(교성 78:18)

“또 시련이 인간의 자녀 가운데 있을 것이로되 나의 백성은 내가 보존하리라.”(모세 7:61)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경전에 대하여 감명을 받지 않는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모세 1:41 참조) 그러나, 여러분은 경전이……고대와 현대의 경전이……어떻게 함께 자라는지 보게 될 것이며(니이 3:12 참조), 특히 경전을 사용하는 것을 배울 때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값없이 여기”(니일 19:9)는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 생각할 것입니다.(모사 3:9)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이자 모범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계명은 “나와 같은 자”(니삼 27:27)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



돌로 가득 찬 주머니

래리 힐러

말콤 텐트가 자기 주머니에 돌을
 집어넣기 시작한 것은 아직
 젊은이였을 때의 일이었다. 그것은,
 어느 날 그의 주인인 검프씨가 그의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하여 화를 냈을
 때 시작되었다. 그는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마주 소리치며
 응수할 수 없었다. 사실상, 그는
 마음속으로 화를 내는 것 이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렇지만 이 일을 잊지 않겠다.
 절대로.”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버스 정거장에서 집으로
 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얼마나 분한지 기억해야 한다. 아침에
 이것을 잊고 싶지는 않아.”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의 앞에
 있는 보도에 작은 돌 한 개가 있었다.

그것을 집어들고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검프씨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상기하기 위하여 이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했다. 그날 밤
 그는 그 돌을 열쇠와 빛과 함께 옷장
 위에 두었다. 다음 날 아침, 일하러
 가기 위해 옷을 입을 동안 그 흉하게
 생긴 회색의 돌이 그의 주머니로
 들어왔다.

그날과 다음 날 하루 종일 그
 무겁고 불편한 것이 자신은
 검프씨에게 분개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상하게도
 검프씨는 그것에 대하여 모두 다 잊은
 것 같았다. 그러나 말콤 텐트는
 그렇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사실상 다음 2주일 동안 검프씨는 몇

번 더 말콤을 화나게 했으며, 말콤은
 이런 일을 좀더 잘 기억하기 위하여
 그럴 때마다 돌을 하나씩 चु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콤 텐트의 바지는 블록
 튀어 나와서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검프씨를 용서하거나 친해지거나 그와
 비슷한 일을 안하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어쩌면 말콤이 검프씨에게 화가 날
 때 돌을 모으는 일만 했으면 차츰
 감정이 정돈되어 좋내는 잊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 택시 운전사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면서도 빗속에 서
 있는 말콤을 버려 두고 갔다. 반짝
 거리고 비에 젖어 미끄러운 자갈
 하나가 도랑에서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물론 말콤은 그 운전사의 이름을 몰랐으나 상관없었다.) 그리고 또, 식품점 점원이 그에게 잔돈을 올바르게 주지 않았다. 그리고 신문 배달부가 신문을 빗물 웅덩이 속으로 던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웃집 개가 밤늦게 짖어댔다. 그리고 또..... 어쨌든 말콤은 이 세상에는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온갖 사람과 온갖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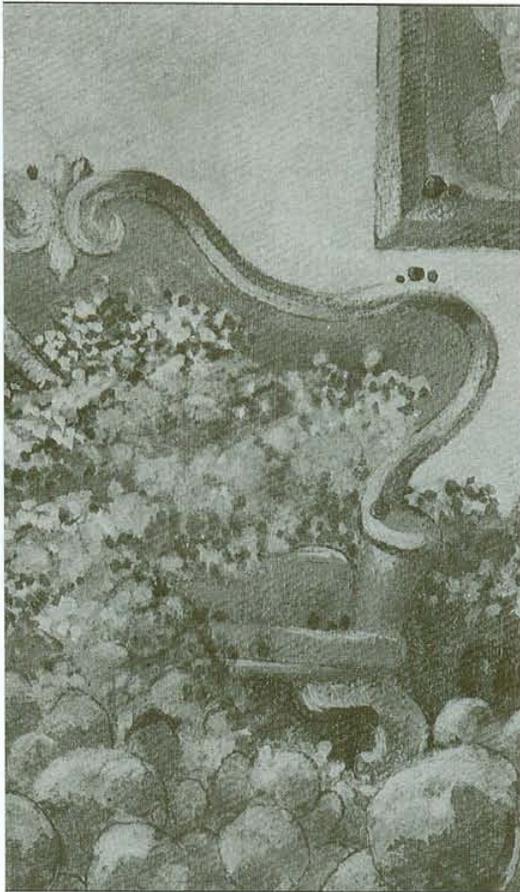
발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말콤은 또 주머니에 돌이 가득 차면 허리띠 하나로는 바지가 제대로 매달려 있을 수 없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는 양팔에 식품 봉투를 가득 안고 갈 때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바지를 입을 때 도움이 되도록 튼튼한 한 쌍의 가죽끈 띠를 만들었다.

그러나 곧 그의 바지에는 주머니가 부족한 시기가 와서 어디에 가든지 주머니가 많이 달린 상의를 입고



다녀야 했다. 그러나, 머지 않아 그의 상의도 바지처럼 꼰볼견이 되었다. 그리고, 더러운 것 만큼이나 냄새도 났다. 또 주머니가 더 많았으므로 더 무거워졌다. 다른 사람 같으면 누구든 이쯤에서 포기했겠지만 말콤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세일즈맨이 사용하는 것 같은 크고 튼튼한 서류 가방을 샀다. 어쨌든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인생에는 귀찮고 성가신 온갖 것이 다 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을 많이 갖고 다니는 것이 늘 피로해지면 점점 더 쉽사리 화가 났다.

여러 해가 지나 말콤이 화난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모은 돌이 그의 주머니와 서류 가방과 그의 집 사방에 가득 차서 넘쳤다. 부엌의 싱크대, 벽장, 마룻 바닥 사방에 가득 찼다. 몇 번은 밤에 잠자는 동안에도 화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불 속에도 돌을 두었다. 말콤은 이상하고 불쾌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능하면 그를 피했으며, 그래서 말콤은 점점 더 화를 잘 내게 되었다. 돌은 그렇게 좋은 동반자가 못된다. 딱딱하고 지저분하고 겨울에는 몹시 찼다.

이제 말콤은 완전히 돌에 파묻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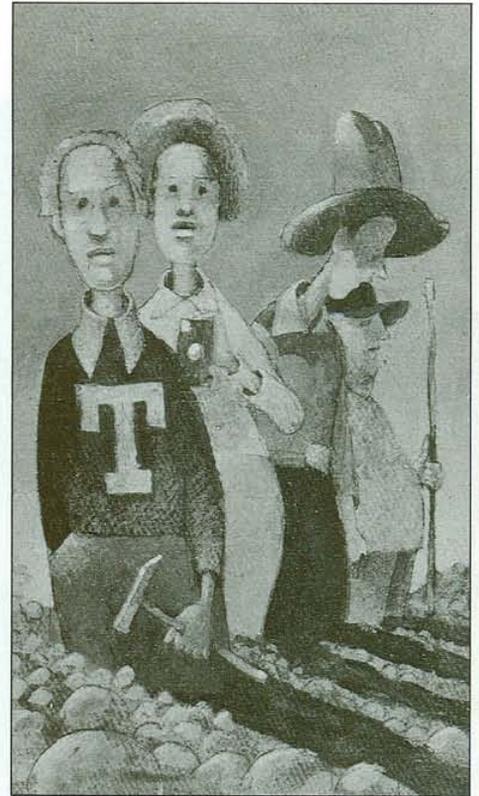
비열한 노인으로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날 대학의 지질학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그너스 박사는 말콤이 돌을 굉장히 많이 모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안 그런 사람이 있나?) 그래서 그 교수는 지질학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보이고 싶어했다.

말콤은 이렇게 생각했다. “마침내 내 돌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나에게 잘못했는지 상기시켜 주는 이것을 그들이 다 볼 때까지 기다리자.” 다음 토요일로 약속이 되었으며, 말콤은 다음 며칠 밤을 먼지를 털고 정리하는 데 보냈다.

마침내 토요일이 왔으며, 오후 두 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그리고 현관 앞에 이그너스 교수와 그의 훌륭한 학생 7명이 가장 좋은 야외복을 입고 거기 서 있었다. 그 중 몇 사람은 허리띠에 돌 깨는 망치를 갖고 있었고, 한두 사람은 카메라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노트와 연필을 갖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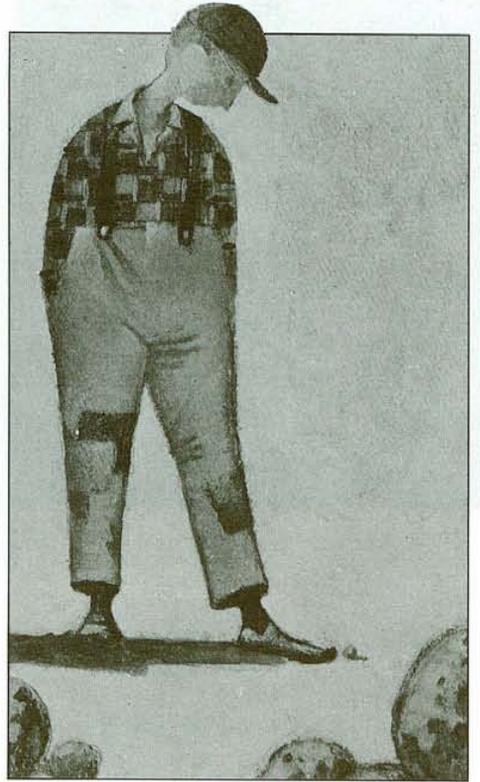
이그너스 교수 자신은 좀 평범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여러 해 동안 밖에서 생활한 탓에 검게 타 있었다. 사실은 그의 눈에도 무언가가 있었다. 눈빛이 깊고 어두웠으나 거기에는 그가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번득이는 광채가 있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는 마치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듯 산과 바위의 형성을 보는 것과 똑같았다. 이 사람은 적어도 돌을 좋아하는 것 만큼 사람을 좋아하는 과학자였다.

교수와 학생들이 돌로 가득 찬 거실로 들어올 때 말콤은 그들이 감탄하는 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마치 불꽃놀이를 볼 때처럼. 그러나 그 대신에 불유쾌한 침묵만 있었다. 그들은 그냥 거기 서서 둘러보면서





없었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 서 있는 학생들도 동감이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콤은 불안하게 말을 시작했다.
“글쎄…에…저는…그러니까 이것은…”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어떤



발끝으로 돌 몇 개를 툭툭 건드릴 뿐이었다. 그리고는 학생들이 교수를 쳐다보며 그가 무언가 이야기할 것을 기다렸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아름다운 보석과 광물 수집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것은 흔히 있는 석회석, 사암석, 규소석 더미에 불과했다. 심지어는 부서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조각까지 있었다.

마침내, 이그너스 교수가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에헴”하면서 목청을 가다듬었다. “텐트씨, 수집한 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수집을 전에 본 적이

사람에게도 많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이그너스 교수는 말콤이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너무나 심하게 마른 침을 삼켰으므로 그의 목젢이 불룩불룩했다. (어떤 학생은 그가 그 돌을 하나 삼키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다.)

교수는 도와 주려고 이렇게 말했다.



“왜 이 돌을 택하셨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지요.” 그는 다른 대부분의 돌과 같은 모양의 회색 석회암을 집어들었다. “왜 수집하실 때 이 특별한 석회암을 택하셨지요?”

“아, 그것 말씀인가요? 아마 그것은 세탁소에서 내 셔츠를 제 시간에 세탁해 놓지 않았을 때 주는 것 같아요. 잠깐! 아닙니다. 아마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쇼가 취소되었을 때일 겁니다. 아니면, 전화 소리에 집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전화를 잘못 걸었다고 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그는 기억을 더듬느라고 잠시 멈추었다.

돌이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너무나 비슷했다. 회색에 딱딱하고 차고 더러웠다. 문득 말콤은 이그너스 교수와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이것은 평범하고 늘 있는 돌에 지나지 않았다. 말콤이 그들이 알도록 설명해야 했다.

“이 돌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이 돌은 하나하나가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거나 나에게 매우 잘 대하지 않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했던 것을 나타냅니다. 나는 이것을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한 도구로 주었습니다.”

이제 교수와 학생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다. 그들은 모두 갑자기 말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지요?” “당신과 돌을 함께 사진찍어도 좋겠습니까?” “희한한 실습이로군!” 이그너스 교수가 다시 말하자 모두 조용해졌다. 그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텐트씨,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그런 이유로 돌을 모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그는 잠시 멈추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당신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은 대단히 친절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시간을 많이 뺏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다른 수집품을 구경해도 좋겠습니까?”

말콤의 얼굴에 멍한 표정이 나타났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으지 않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나는 그저 다른 사람이 좋은 행동과 말을 한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도 수집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한 이웃 사람인 크랏츠 부인은
그에게 케임을 한 조각 가져다 주었을 때
말콤이 꽃밭에 나가서 씨를 한 개 심는 것을 보았다.



어...상관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여기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학생들을 모아서 문쪽으로 돌아왔다. 그러다가 그 교수는 다시 말콤을 향하여 서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오늘 오후에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것을 수집한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다시 말콤은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내 것처럼 이렇게 수집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 그냥 나는 당신이 아는 다른 사람들도...혹시...당신이

그들을...짜증나게 만들 때 뭔가를 수집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는 재빨리 이렇게 덧붙였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와 그 학생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돌아서서 보도로 행진해 가 버렸다.

그들이 가고 나서 한참 동안 말콤은 거기에서 있었는데, 꼭 그 차디찬 회색의 매우 조용한 돌같이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교수의 말이 메아리쳤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집 전체가 조용했다. 갑자기 그는 그 학생들의 친근한 잡담이 얼마나 유쾌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생각났다. 자기가 누구든 다른 사람과 친근한 이야기를 한 지 얼마나 되었나?

자기에게 더 이상 친구가 있었나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가 멈출 수 있는 틈도 없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꼭 이 돌처럼 되고 있다.” 말콤은 어두움 속에서 홀로 앉아 있는 동안 마침내 그 돌이 얼마나 불쾌한 동반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불쾌한...어떤 생각은 실제로 말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힘들었다.

말콤은 며칠 동안 몇 시간씩 돌처럼 가만히 앉아서 돌처럼 딱딱한 생각을 했다. 그는 마침내 돌이 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봄에 흙 속에 있는 씨앗처럼 무언가가 잠을 깨서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다.

고양이 새끼나 기타 비슷한 것이 남을 때 그것을 말을 집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 흔해빠진 먼지나는 회색 돌더미를 원하는 사람을 찾기는 얼마나 더 어려울 것인가. 사실상, 그냥 그 사방에 흩어진 돌을 주워 모으려고 노력해 보는 것이 고작일 뿐이다. 말콤은 청소부 아줌마를 고용하려고 했다. 그들은 모두 말콤에게 똑같은 말을 한다. “나는 창문 청소나 돌을 쫓는 일은 안합니다.” 그가 창문에 “돌을 공짜로 줍니다.”라는 간판을 걸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이것이 자기 스스로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웃 사람들은 아직도 말콤이 트레일러를 빌려와서 그의 앞 현관으로 갔다 덴 그 날과 그 돌을 트레일러로 샅질해 담을 때 엄청나게 솟아오르던 먼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또 말콤이 얼마나 더 보기 좋은지, 그의 옷이 얼마나 더 잘 어울리는지(체중이 빠졌나?), 또 그가 지금 실제로 어떻게 미소짓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말콤의 이웃 사람들은 나무와 꽃과 덤불이 온 사방에 있는 말콤의 아름다운 정원을 아름답게 가리킨다. 그들은 그가 왜 갑자기 정원을 가꾸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 이웃 사람인 크랏츠 부인은 그에게 케임을 한 조각 가져다 주었을 때 말콤이 꽃밭에 나가서 씨를 한 개 심는 것을 보았다. *

원리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권 의식의 참된 본질은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교리를 알고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연차 대회가 열리는
기간 중 1984년 4월 6일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말씀하신 것을
편집한 내용이다.

나는 선교사 부름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지명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경전에서 80번 이상이나무려 80번 이상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만 해도 선교 사업을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선교사를 부르는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또한,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모든 젊은이가 선교사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한 더 큰 결심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어쩔 수 없는 육체적 장애가 있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젊은이가 선교사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세상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으므로 우리는 자매들이 선교사의 부름을 받는 것을 똑같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자매들이 안전하게 지명받을 수 있는 장소의 수가 어느 선교부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매의 수가 거의 압도적으로 더 많다고 할 수 있는 선교부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매들을 부르는 것을 중단하면 안되지만 더욱 더 장로들을 부르도록

교회의 젊은 회원이 복음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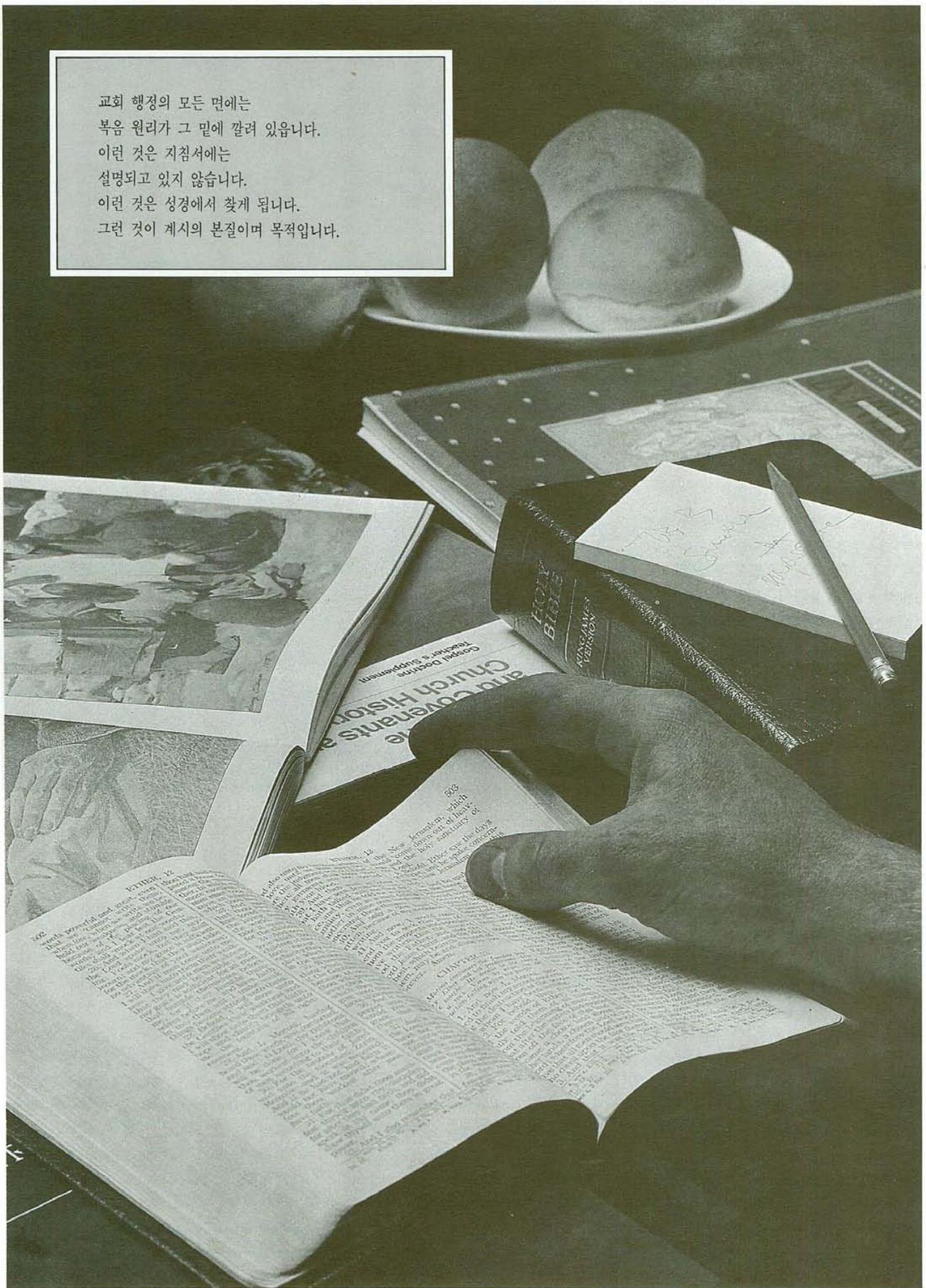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 부름에 관하여 내가 전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면 선교사 부름이 교회의 성장에만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안전 그 자체에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제목은 원리라고 하는 간단한 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나는 신권 관리의 근본 원리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필수적인가 하는 몇 가지 예를 들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선교 사업에 적용시켜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원리는 교회의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 신권 지도자들의 일이 모두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가령, 모든 시간을 다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더구나 그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합당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그들이 지나쳐도 안전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지도자들의 책임은 다음과 같은 범주에 둘 수 있습니다.

교회 행정의 모든 면에는
복음 원리가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침서에는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그런 것이 계시의 본질이며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할 조직이 있으며, 계속해서 역원 보충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관리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따라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집행할 공식 정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존중하고 가르쳐야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조직, 프로그램, 절차, 정책 및 원리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과 예산을 쓰고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을 등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는데, 하나는 우리 성역에 있어서 좀더 영적인 부분으로부터, 또 하나는 세상적인 부분으로부터 나오는 예입니다.

첫째 예는 교회 재관과 관련됩니다. 매우 심각한 범법 행위가 있을 때 회원을 징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재판을 열기 위한 조직과 절차는 지침서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원리를 모르는 한 기술적으로는 지침서에 맞게, 또 합당한 절차에 따라 교회 재관을 하면서도 그 범법한 회원을 고치기 보다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원리를 모른다면(제시에 있는 복음의 원리, 교회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제사에서 공의와 자비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징계와 용서에 관하여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여러분의 판단력이 필요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영감받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지침서의 절차를 넘어서는 한 가지 영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권에 속하며, 거룩한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모른다면,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이 그것을 잘 모른다면 그들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도 성도들을 구원해 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 : 제시를 보면, 우리는 합당한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어떻게

행하여야 합니까? 우리는 금식 헌물을 수집해야 하며, 복지 봉사 프로그램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침서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가 서로 다릅니다. 복음 원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기술적으로는 그 지시에 일치하게 행동하면서도 그 회원을 들어올리기 보다는 낫출 수도 있습니다. 독립, 근검, 자립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헌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는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을 강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목시(시현)의 문제입니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멸망하거니와).” (잠언 29:18)

교회 행정의 모든 면에는 복음 원리가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침서에는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그런 것이 제사의 본질이며 목적입니다.

제반 절차, 프로그램, 행정 정책 및 심지어 일부 조직 형태까지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사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반 원리와 교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변할 수 있고 변하면 변해야 하는 프로그램과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복음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잘못 인도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해서 들어 주십시오. 나는 지침서나 교제를 무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단 1분간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자신의 성역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침서에는 없는 영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 때, 여러분은 지침서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지닐 수 없는 충성심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력을 볼 수 없는 발명을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빨리 성장하므로 구역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바꾸고, 지도자를 다시 조직하고, 좀더 편안한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 역사에서 읽어 온 것과 같은 절약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모든 말일성도의 생활에서 기본적인 복음 원리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신권 행정의 참된 본질은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교리에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주셨습니다. 그는 관리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이로써 스스로를 다스립니다.”

얼마 전, 나는 브라질에서 어떤 젊은 감독을 접견했습니다. 그는 만 27세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성공적인 교회 지도자의 모든 특성-겸손, 간증, 용모, 지능, 명성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나는 여기 교회에 위대한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면서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그의 장래는 어떤 것이 될까? 우리가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할까?” 나는 마음속으로 앞으로의 여러 해를 그려 보았습니다.

그는 아마 6년간 감독을 할 것이며, 그때면 만 33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8년간 스테이크 고등 평의회에서 봉사하고, 5년을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보좌로 봉사할 것입니다. 그는 만 46세에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6년 후에 그를 해임하여 지역 대표로 부를 것이며, 그는 5년간 봉사할 것입니다. 그 말은 그가 30년간 이상으로서, 따라야 할 모범으로서, 형상으로서, 지도자로서 살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통털어도 그는 복음 교리반에 3번 연속해서 참석하거나 신권 정의회 공과에 3번 연속해서 참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이런 모습에 비추어 보십니까?

그는 부름받기 전에 복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한다면 봉사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 가운데서 키우십시오.
결코 감정의 열기 속에서
그들을 교정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